

천명의 많은 직을 상대하여 용감하게 싸워 승리 이겼 다 해도 자기를 싸워 이기는 이것이 참으로 장사중의 최상이니라. (法句經·출전품 129절)

발행주최	동국대학교
편집주최	동국대학교
인간관계	동국대학교
신상	동국대학교
국문	동국대학교
주요인물	동국대학교
주요인물	동국대학교

과 내 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267-8577)
경북 경주시 석남동707 (41-4132)
인쇄인 김영로

재단입원 중단시켜 이익부 전격포체

총장서리에 申國柱 교수 선임

교수·학생 반발... 조속 민주총장선거 주장

李智冠 前총장임기가 지난 1월 17일로 끝나고 곧바로 재단 이사회의에 적후대리로 선출되었지만 문교부에서 이 조처에 대한 강력한 반대시위를 표시함으로써 재단이사회는 지난 16일 申國柱(정치외교학)교수를 총장서리로 선임했다. 이는 지난9일 이사회에서 발표된 사표수리 15일까지는 吳國根(정치외교학)교수가 총장직을 대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번 총장서리 선출은 전체 교수임시총회에서 선출한 2인의 후보를 배제한 것으로 학생·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장서리 선출로 졸업생들의 학위등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던 불씨는 일단 꺾이지만 이번 결정이 그동안 차기총장은 학원 각 주체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고 이번 서리로 선출된 申교수 개인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의 사표명 등으로 본교의 분규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인터뷰 7면〉

교수회서 총장후보 선출

총장서리 선출을 위한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회의 정족수 1백81명이 훨씬 넘는 2백41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L301)에서 열렸다.

1차 투표에서 5인을 선출하고 이어 2차 투표를 거쳐 중

학위등록 차질로 李총장 직무대행 사표



申國柱 총장서리

수 2인 선출방식을 택한 이날 1차 투표에서는 閔丙天(정치외교학)교수 56표, 李昌培(영어영문학)교수 49표, 吳國根(영어영문학)교수 20표, 李鍾遠(교육학)교수 16표, 申國柱(정치외교학)교수가 15표를 각각 얻어 5인의 후보로 선출됐다. 이어 2차 투표에서는 閔丙天 李昌培 두 후보를 최종 선출했다.

1차 투표가 끝난 오후 4시30분경 학생들은 5인후보중 李昌培, 吳國根, 閔丙天, 申國柱교수들을 기록하면서 "이들은 지난 행적에 비추어 인맥과 파벌에 얽혀있고, 반학자부세력이라고 규정되므로 투표를 무효화하고 3자합의로 총장서리를 선출하자"며 회의장을 점거, 1시간여동안 선거가 중단되기도 했다.

교수대의원회 성명발표

교수대의원회는 이번 재단의 총장서리선출과 관련, 지난 20일 "교수회에서 추천한 총장서



吳國根 부총장

리후보가 선임되지 못한 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최단시일 내에 교수회가 추천하는 총장 후보중에서 총장을 선임해 줄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다.

중단차원 수습책 강구

‘동대사태수습대책위(위원장 宋月珠)’가 지난 16일 총무원 서서 열려 黃彰經(사상)을 비롯한 吳國根, 李智冠, 朴玄愷, 徐鎔城, 高光德(사상) 등 총무원 8명의 사표를 결정했다. 이는 중단의 재단에 대한 불만이 가시화된 것으로 지난해 부정입학사건 이후 유례를 들어서도 본교의 정상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그런 재단이사회의 중단 사표를 부시한 이사보선의 문제점을 이유로 재단에 강경처방을 내린 것이다. 한편 중단에서는 재단의 총장서리 선임에 관해서는 학사일정을 고려,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나 6개월간의 서리기간이 끝나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장을 선출토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중회 새임원선출

21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중 비상중회는 학교법인 동국학원임원선임안을 상정, 前 임원을 전원 퇴진시키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 △理事=△의현(총무위원장) △정대(경외외장) △함은 △월탄(법주사 주지) △천장(백양사 선원장) △승혜(경주 기림사) △정후(법보신문 주필) △현근(조계사 주지) △드문(대구 파계사 주지)
- △監事=△삼지(상원사 주지) △혜법(선홍사 주지)

서울 부총장에 吳國根교수

吳國根(영어영문학) 기획조정실장을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申총장서리 약력

△47년=해운전문학교 불교학과 △50년=본교 사학과 △55년=일본 와세다대 정치학 석사 △64년=일본 법경대 정치학 박사 △66년=본교 정치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법경대학장, 이부대학장 등 역임.

△吳부총장 약력

△58년=본교 영문과 △71년=본교 전임강사 부임 △88년=일본 법경대 영문학박사 △학예처장, 문과대학장 등 역임.

졸업행사 진행 ‘불투명’ 상태

오는 23일 학위수여식

경주캠퍼스는 26일 박사 35명 등 총 3천여명 배출

서울캠퍼스 9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반 해방장에서 기행예정임으로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삼거리, 레,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고사, 동광회장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학사 2천2백35명, 박사 35명, 각 대학원 석사 등 총 3천여명에게 학위가 수여된다.

서울캠퍼스 전체수석은 평점 4.53을 얻은 김희태(이과대-물리학)군이며, 차석은 4.25의 김미경(이과대-영문)양이 차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대운동장에서 거행된다.

△박사학위 취득자(학위명)

- △진호현(철학) △최복수(철학) △김세경(문학) △김진학(문학) △시라키와유타카(문학) △유병환(문학) △강종립(문학) △김상현(문학) △임영정(문학) △김필수(철학) △박종삼(교육학) △최창동(법학) △차상호(정치학) △이윤근(법학) △김영호(경제학) △연재선(경영학) △우창열(경영학) △박상수(경영학) △박정열(경영학) △이성규(경영학) △정재용(경영학) △임창주(문학) △한홍렬(문학) △한한수(이학) △천미경(이학) △이갑득

교수동정

- ▲孫海龍(법학)=오는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학술연구차 서독으로 출국예정.
- ▲崔世河(국어교육)=지난해 12월 21일 국어학회 평의원회에 서 90년도 국어학회 회장에 피선.
- ▲金永在(경영학)=지난달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특별기금에 의한 단기연구차 미국 U.C.L.A 대학으로 연수.
- ▲金英吉(불교학)=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미국 뉴욕 주립대로 연수.

보수

단에 오를때 수많은 학생들이 야유를 하고 많은 학생들 이 석장을 퇴장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것은 단적으로 대학의 아가네미를 대표하는 총장이 주체적으로 자유스런 대학의 신성한 학문의 터전을 건설

대학의 현실

해 내지 못하고 또한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지 못하며 권력의 그늘 속에서 눈치보며 대학의 권위가 정부속에 종속당하게 한 소신없는 자세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일은 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각설하고 졸업식 행사가 어찌됐든 이 땅에는 또 수많은 고급인력(대학생들)들이 상아탑을 나오게 됐다. 그런데 4년동안 가족이나 부

후기 합격자 6백 86명 발표

26개과, 평균 4.64대 1의 경쟁률 보여

90학년도 신입생 후기합격자 발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에 있었다. 이번 입시는 불교학과를 비롯한 총 26개 학과(경주5개과 포함) 모집인원 6백86명(경주 1백38명)에 총 3천1백87명이 지원, 4.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7학년도 입시 이후 2년만에 실시된 이번 후기 입시의 전

동대신문 기획광고 ②

경주 상징탑 ‘흰코끼리상’ 준공 26일 제막식... 건학이념 구현 취지

경주캠퍼스 상징탑(정동 코끼리상)준공식이 89학년도 경주학위수여식이 열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학생회관우측 상징탑앞에서 열린다.

李昌培·金鍾遠 교수 퇴임 28일자 羅彦杓 총무부처장도

李昌培(영문학과)교수, 金鍾遠(경제학과)교수와 羅彦杓 총무부처장이 오는 28일자로 정

면서 대학원장 교무처장 사대 학장등을 역임했다. 김교수는 지난 55년 4월에 부임, 34년 10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부총

장 교무처장 이부대학장등을 역임했다. 한편 羅총무부처장은 지난 60년 4월에 부임, 30년 10개월간을 재직해왔다.

이것은 단순히 총장이 대 통령 위에 앉았다는 그런 하절 것 없는 계층의 서열을 예 기하지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권력이 행사하는 권위보다 학문이 차지하는 우위, 그 지성의 권위를 앞에 두는 지적문화의 건강 한 풍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교할 때 얼마나 부러운 현실인가. 작년엔가 국립대학인 서울 대 졸업식장에서 총장이 연

학문과 정의 를 뿌리 내 리지 못하는 사회는 두말 할 것이 없이 병들고 잘못된 나라이다. 그런데도 정부 권 력자는 오 병든 사회를 수습 하여 재생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그들의 정략 높음만 일 삼은 채 서민들 대다수의 민 중들의 삶을 위문하고 있다. 좀 지나친 얘기지만 미국 의 신식민주의 권력보수대 연합을 구성한 거대여당은 이런 원초적 삶의 길을 졸업 생들에게 열어 주어야 할 것 이다. 如 然



1987年度學位授與式 祝賀

國籍은 바꿀수 있어도 校籍은 바꿀수 없다

외국에 나가있는 한 동문이 이런 말을했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되듯이, 교문을 나서면 모두 애교자가 된다. 더우기 국적은 바꿀수 있어도 교적(校籍)은 바꿀 수 없다”라고. 늙음하고 듬직한 코끼리의 기상으로 84년의 전통을 쌓아온 東國-

오늘 다시 東國人은 새 역사의 창조자로, 진취적인 개척자로 빛나는 내일을 힘차게 열어간다.

社說

각 주체들은 직선총장 원한다 재단이사회는 대학의 의사 반영해야

제12대 총장선거에 申國柱교수가 대학의 민주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단이사회의 결정으로 선임되었다.

본교 사상 처음으로 교수직 직선총장을 허용하겠다는 재단이 틀린 기본적인 관념을 보인 것은 우리들 또한 반기지 않는다.

재단이사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때 동국대에서는 총장선거를 위한 교수 비상 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해 본교는 중단 내의 중견 다음으로 문교부에 투서가 들어가고 결국 부정입학사건이 터짐으로써 이후 총장선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선 총장선거 선임과정에서 여전히 부정입학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재단의 총장선거 선임에 보여 선거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단쪽에서는 교수회에 총장후보 추천을 해 줄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선거가 선출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었던 문제점을 하나이다.

이는 재단이사회가 지난 15일부터 '총장선출권'을 일단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교수총회를 16일로 잡은 것은 중대한 실책이며 분명 재단쪽에서 총장

을 독단적으로 선임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교수회는 방학때 교수·학생·직원 3자가 모여 선거제도에 관한 부분부터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총회소집 시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실천을 못해낸 것이다.

申國柱신임 총장선거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일단 유보하자.

6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총장선거는 내일이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장후보를 선출하면 그때 자연히 자격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대다수 교수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교수직선 총장을 선출하길 원하고 있고 학생 직원등 각 학원주체를 또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제도와 후보 등록에 관한 선거규정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교수 학생·직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 적용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선거 주체들의 의지와 실천이다.

대학은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단의 일방적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재단은 소속된 각 주체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총장 후보를 선임하기를 바란다.

미군감축은 본질외면 숫자놀음 체니 방한 기점으로 미제속셀 간파해야

달갑지 않은 손님인 체니 미국 방방장관의 방한을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반대로 정부에는 권력 유지의 희망을 심어 주고 갔다.

이상훈국방장관의 회담을 통해 논의되었던 골자는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분담, 작전권이양, 용산기지이전 등에 관해서였으며 체니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측은 고개만 끄덕이려 앞으로의 '민중주권선'을 어둠에 했다.

대학을 위시한 기층민중들의 미군감축요구는 93년까지 비전투요원만을 5천명정도로 감축해 3만7천명규모를 유지한다고 밝혀, 단지 미제국의 재정을 고려한 과립적함을 보여 주었고, 방위비는 더욱 어처구니 없게도 기존의 3억달러에 배가 넘는 3억8천만달러를 덧붙여 6억8천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주한미군을 줄여도 줄여도 역원상이 나타났는데도 모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민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UN연합군이라는 미명 아래 불경적으로 들어와 인종 오히려 주권이 전도된 것까지 방위비를 올려달라, 고용노동자를 늘려달라 등의 양심없는 요구를 일삼는 것이었다. 한편 작전이양권 문제는 평시에 한해서만 한국측에 이양한다는데 합의해 결국 작

전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다시 미국에서 결정하고서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갖게 됐다. 용산기지이전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보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피해 양국 국방부에서 합의각서를 통해 보다 미군들이 생활하기 좋은 교외로 옮기며 남성대포장까지 넘겨 주기로 합의했다.

체니와 이상훈장관의 회담결과 는 단순히 피상적인 국민안심책이라는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한번 동족인 북한을 핑계대고 말았다. 미제의 논리는 늘 민주주의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술의 포장만을 바랄뿐 국민이익의 추구는 전적으로 공방적인 것이다. 이미 소련의 라사페르가 분석했듯이 이번 회담은 체니의 알뜰한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미리 간파했던 필리핀의 운동단체들은 체니의 방문을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연일 갖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폐만 개 치는 불청객을 너무 조용히 보냈음이 분명하다. 군축에 관한 논의가 이미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소련의 코르바초프는 미국에 군축의 장을 제시했음에도 계속 강화되는 제3세계의 무기고화와 한반도에서 자행되는 한미연합사부의 T-프로젝트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다.

국민은 '구사교'에 매인 인형인가



韓相範 (법과대학교수·헌법학)

우리는 한국정치에서 기묘한 조각의 드라마를 보는 관객으로 되어 오고 있다. 1989년 12월 31일 한 밤중에 국회 청문회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제5공 청산'이란 실체작을 보고 가슴을 친지 얼마 안된 1990년 년초에 3당 통합이라고 하는 현정 사상 유례를 볼수 없는 이변을 보는 관이 되었다. 여당 총재가 단상에서 3당 통합을 발표하는 바로 양 옆에 민주당 총재와 공화당 총

재가 앉았게 서있는 광경을 텔레비를 통해보게 되었다. 중산층 일부와 소부르조아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총재라고 하는 이는 뒷줄을 지고 있고 독점자본을 대변하던 구 권력과 구정부출신으로 이루어진 공화당 총재는 두 손을 마주잡고 서있는 꼴은 참으로 다시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수 없었다.

여기서 공화당은 5·16쿠테타로 정교부가 만든 정당의 후신으로 유신의 본당과 잔당으로 5·17(1980) 쿠테타로 만들어진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민정당과 이복형제 사이니 먼저 연고도 합칠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정교인 중심의 집단의 민주당은 그 총재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정통 야당'을 자처해 오고 또 지난해 대의원 선거에서 표를 찍어준 것은 야당으로서이지 여당으로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당적을 변경하면 스스로 의원직

—3당합당의 기만적인 보수 대야합

와 주변 몇 사람의 공작과 당수의 결단으로 야당이 하루 아침에 여당으로 변신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특히 그러한 합당이 공개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의 막후 교섭·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합당을 한 야당의 당원들에게는 미리 아무런 의사를 물어보지도 아니했다. 그런 정교부가 만든 정당의 후신으로 유신의 본당과 잔당으로 5·17(1980) 쿠테타로 만들어진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민정당과 이복형제 사이니 먼저 연고도 합칠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정교인 중심의 집단의 민주당은 그 총재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정통 야당'을 자처해 오고 또 지난해 대의원 선거에서 표를 찍어준 것은 야당으로서이지 여당으로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당적을 변경하면 스스로 의원직

기존의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직 선으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30여프로의 지지에서 불수 있었음에 계속 집권이 어렵고 특히 대통령단임제에서는 계속하여 집권을 이어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현제도에선 집권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제의 구축이 안 되고 이타와 갈등·대립이라고 하는 혼란을 야기할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내각제로 돌과 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물론 이 점은 앞으로 두고 불일치지만 3당 합당은 국회의석 70프로를 차지하여헌법개정의 의석을 탄탄히 확보해 놓고 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이고 집권 여당의 자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위엔 두 케도를 설정할 수도 도 위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집권위한 일사불란의 체계구축 밀실의 막후거래로 유권자 우롱

을 '구사교'에 사로 잡힌 '구국의 결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만 할수 있겠는가. 이 점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할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3당은 합당이 되어서 민자당이던 정당이 새로 만들어졌 다. 여기서 다시 합당한 야당이나 그 의원 및 당원을 두고 말하면 야당이나 의원과 당원은 선거를 통해서 아니하고 야당에서 여당이 되었으니 '승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신의란 것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하는 점은 자명하다.

한편 집권 여당에서는 어째서 '보통사람'의 상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3당 통합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출하게 했을까. 그로 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이 따져 보아야 할 본분이다. 여소야대가 정국을 불안하게 했었는데 이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 볼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회의 의석 판도에서 정부·여당으로서 할수 없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대통령의 법통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견제장치가 보장되고 있는 공화당이 중여당의 보좌역 또는 배후부대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은 실제로 행세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만일 우리 정치 풍토에서 정부·여당이 내각제를 통해서 계속하여 집권을 연장해 나가 고자 한다면 국회의 통에서 의원의 머리수대로 승배를 가리는 안전한 절차이에는 안 맞는 대통령직 의외권과 군부수권 및 비상권한을 가지는 '2원집정부제'가 되기 쉽다. 총리(수상)는 국회 관리의 실무지역이 되고 권력의 정상은 대통령이 되는 변형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구집권'이라고 하는 비난을 당하지 않고 또 단임제한 장벽에 막히지 않고 장기 집권으로의 길에 포석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보면 후기와 자기 집권을 다져가는 목적하에서 3당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합당한 야당들이 무엇을 노렸던 건에 이미 여당이 걸어놓은 케도에 오히려 걸이 되었다. 정부여당은 여소야대에 보다 국회에 의의 권제를 받는 본당이 되고 보다 편리하게 독점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킬수 있고 그러므로 세 정치자금면에서의 후원이 장구 단일화로 편리하게 되어 정경유착이 일층 심화될 조짐이 있다.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획신적인 세력 공고에 강화되고 노동·농민·기층민 및 소시민의 사회운동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중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대중은 자기앞에서 전개되는 사태에 스스로 대처할수 밖에 없다. 이 점은 아주 분명하다.

재단의 독선이 낳은 "불행의 씨앗"

비 민주적 총장선거 선출로 소용돌이 예고

지난 16일 열린 교수총회와 재단이사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교 내가 다니는 동학의 현실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등록금 투쟁과 민주적 총장선거 투쟁의 과정 속에서 우선 재단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규모의 불교계 중단의 하나인 동국대에 먼지가 나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소리내어 외쳐대고, 이면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직면의

있었다. 그것을 16일 교수총회에서 실감하면서 세상 우리들의 학원자주와 투쟁은 그러한 모순의 뿌리가 잔존하는 한 계속 필수불가결한 필연성을 느꼈다. 작년 투쟁기간동안 지적해온 그 무작위 선출방식을 통해 1차에 5명의 후보를 뽑는다는 결의에 자

대하는 교수님들에게서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 동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번 총장선거를 통해 많은 사실을 깨달았다. 학생이 학생회의 투쟁기간동안 지적해온 그 무작위 선출방식을 통해 1차에 5명의 후보를 뽑는다는 결의에 자

문제 공유로 대중투쟁력 고양돼야 학자투정신 무시한 시대역행적 착오

연금을 지급하는 재단의 뻔뻔스러움에 그렇게 분노했지만....., 이 재단은 총장선거 과정에서 재단 주체의 참여와 협의정신을 무시한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독단적 호선을 택한 그들에게 목격할 문고 있다. "동국대학교에 과연 재단이 있습니까?" 세인의 눈을 피해 이곳 저곳 호들갑을 떨고있던 재단이 어떻게 재단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은, 그동안 그렇게도 안된다고 주장했던 대표자리를 돈보따리와 만 바버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상응한 교수총회의 진행은 너무나 수직적이었다. 동국대 체제의 가장 큰 원인은 인맥·파벌 그리고 어용무능의 침식이라 알고

람스럽게 박수를 치는 교수님들....., 우리는 동국의 총장은 인맥·파벌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야 하고, 그는 재단 학자투정신 행을 성실성있게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고 무수히 주장해왔다. 그런 너무나 당위적이고 예교에 충만한 요구에도 교수님들은 기간에 반학자투정 세력으로 인맥과 파벌의 중심으로 거론되었던 5명을 고스란히 1차에 선출하였다. 그때 신주교수 재단이사회에서 낙선했다는 사실과 상응한 교수총회의 진행은 너무나 수직적이었다. 동국대 체제의 가장 큰 원인은 인맥·파벌 그리고 어용무능의 침식이라 알고

속되어야 한다. 또한 기간에 진행되었던 대중투쟁의 편향을 지양하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 투쟁을 반드시 대중투쟁으로 승리해야 한다. 대중 투쟁의 참여 보장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현 총장선거는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지금의 혼란한 상황은 그 어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단 주체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공동적 해결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류효일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東國漫評



일치성 일치성

1989학년도 박사학위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全好蓮(철학박사)=新羅義相의 華嚴教學研究 ◇崔鳳守(철학박사)=初期佛敎의 緣起思想 研究 ◇張世愨(문학박사)=고대 북수 인명표기의 음성·음운론적 고찰-삼국사기·삼국유사인명을 중심으로 ◇金善鶴(문학박사)=韓國現代詩의 詩의空間에 關한 研究 ◇시라카와 유라기(문학박사)=張赫宙研究 ◇柳炳環(문학박사)=古典小說《九雲夢》研究-佛敎思想의 圖象徵에 對하여 ◇康興立(문학박사)=T.S.엘리엇의 소외의식 연구 ◇金相鎰(문학박사)=新羅華嚴思想史研究 ◇林英正(문학박사)=朝鮮初期 外居奴婢 研究 ◇金弼洙(철학박사)=旋轉易學의 道德論의 根據에 關한 研究-易學圖說을 中心으로 ◇朴鍾參(교육학박사)=批判的 思考와 創造性의 融合을 위한 教育課程計劃의 原理探索 ◇崔東東(법학박사)=國家의 象徴에 關한 研究-大韓民國의 國旗를 中心으로- ◇車相吉(정치학박사)=泰國政治에 있어서의 庇丹(Phibun) 政權(1938-1944)에 關한 研究 ◇李潤根(법학박사)=韓國 私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備 發展方案에 關한 調查研究 ◇金榮鎬(경제학박사)=韓國의 適正所得稅率에 關한 研究 ◇廉在善(경영학박사)=住宅(製)品)MIX決定要因에 關한 研究-이 파트圖地造成을 中心으로 ◇禹彰烈(경영학박사)=韓國企業의 官僚化와 疎外 및 組織投入의 關聯性 ◇朴商洙(경영학박사)=觀光마케팅과 消費行動에 關한 研究-利用狀況과 호된 選擇行動을 中心으로 ◇朴奩悅(경영학박사)=國際 移轉價格 決定要因에 關한 實證的 研 	<ul style="list-style-type: none"> 究-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企業을 中心으로 ◇李成圭(경영학박사)=會計情報의 利用에 있어 機關的 固着現象과 重要性間의 關係研究-우리나라 證券分析家의 會計方法 變遷情報의 利用을 中心으로 ◇鄭世雄(경영학박사)=監査報告書의 커뮤니케이션 效果에 關한 實證的 研究-銀行審査役의 認識 및 行態에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任昌周(문학박사)=南漢江의 河岸段丘에 關한 研究 ◇韓鴻烈(문학박사)=한국전통수공예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器工業을 중심으로 ◇韓漢洙(이학박사)= On the Two Stage Queue Feedback ◇千美慶(이학박사)= ON FUZZY NEARNESS SPACES ◇李甲得(이학박사)=나트리아트 중의 광감응성 Mitochondrial ATPase에 관한 연구 ◇李延煥(이학박사)=GaAs에 대한 Si이온주입의 컴퓨터계산 및 그 물리적 특성 ◇林義榮(이학박사)=MBE에 의한 Si기판 위의 GaAs성장과 특성-RHEED를 이용한 표면분석을 중심으로 ◇李鍾漢(농학박사)=보리(Hordeum distichum L.)의 葯培養 效率 推進方法에 關한 研究 ◇朴環碩(농학박사)=한국 산림소묘의 성격명칭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역사적 전개과정과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高城瑋(공학박사)=마이크로소프트 슬롯의 圖形 掛架內에 나열 ◇朴敬浩(공학박사)=鐵筋콘크리트의 剪斷荷重에 關한 研究 ◇金錫中(공학박사)=H形鋼보의 橫向屈曲力에 關한 研究 ◇金慶信(이학박사)=부모와 대학생사이에의 가치전달연구-교육과 직업에 관한 가치를 중심으로 ◇安明淑(이학박사)=製藥의 衍義에 關한 研究
---	---	--	---

졸업식 辭(요지)

영광스런 박사과 석사, 그리고 빛나는 학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 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학부모와 경건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격동기의 80년대를 중심으로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을 누린 소망의 경위자입니다. 한결같이 동양의 주인으로 길을 여는 남산초기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온갖 시련을 감내하며 기쁜 사색의 동야로를 오르내

리던 모든 形相이 형상이 아닌 虛妄임을 타득할 것같은 부처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無相布施의 복덕을 수재자 須菩提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더불어 즐기는 즐거움은 귀한 보시입니다. 사실 내가 있어야 남을 생각함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나와 남이 모두 즐기는 길, 이것은 분명 居仁行義의 비릇이라고 나는 항상 부르셨었습니다.

“自利利他 정신되새기며 自重自愛하라”

우리는 선진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국제정세는 매우 격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불안, 국제경제의 불황속에서 우리민족도 생존하기 위해 奮

의 시대로 능력의 시대로 하이테크의 시대입니다. 모퉁지기 주인 의식을 발휘하여 스스로 오지랴부터 여기고 감싸서 출신수범하는 동국인이 되어 부처없이 멀어진 동국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선봉장이 되라고 호소합니다.

충장서리 신국주

도 利他의 가르침을 당당하게 펼쳐 인연무위의 정신을 되새기며 자중자애하기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강한 햇볕은 진한 그림자를 자아내는 법이니 부디 1940년대의 동국대를 계승하는 합리적인 집장이 되어주시 바랍니다.

사회진출...개인적 고민거리인가

—대동하는 조직적 사회진출 모임

“졸업후 사회진출 문제는 삶의 전망과 직결,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교에서는 학생회 등 대중적 공간에서 이에 대한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 올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한 학우의 문제제기이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의 후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이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자주화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는 올해부터 사회진출분과를 두어, 올바른 사회진출에 대한 관점, 전망, 현황등을 연구해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적이고 중립적이야 한다는 신화는 왜곡된 의식이다”라며 “베트남 전쟁시의 반 인간성, 히로시마의 원폭투하 등에 비추어 보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강조된다”고 강조했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화이트칼라’ 운동 활성화...관점 재고 움직임

학생회 등 대중적 공간에서 함께 고민해야

상과 맞물리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88학년도 2학기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들의 일터’라는 동아리 형식의 소모임이 건설되었으나, 지난해에 거의 조직이 와해되었다가 올해에 새롭게 조직을 모색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이 맞는 동아리나 학회를 건설,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운동과 연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터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사회진출 운동의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의 ‘세벽을 여는 모임’ 고려대의 ‘일하는 사람들’, 연세대의 ‘사회진출연구회’, 이화여대의 ‘사회진출위원회’, 건국대의 ‘잡인꾼’ 등이 그것이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우리 교지 어떤 내용 담기나

‘학자투’에 대한 이해 도와 노동운동의 역사와 과제 다뤄

은 이해이다.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러시아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전문적인 사회과학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始林 9집

9집에 나오게 되는 ‘始林’에는 근·현대 민중해방 투쟁고찰 등 9집에 나오는 ‘始林’에는 근·현대 민중해방 투쟁고찰 등 9집에 나오는 ‘始林’에는 근·현대 민중해방 투쟁고찰 등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근·현대 민중해방 투쟁고찰 학내외 변혁운동 정리평가

정, 5·6공화국 고문 폭력테러 공격적 자포자기 실려 눈길을 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음집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본교에서도 태동 움직임

본교에서는 그동안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들이 ‘학회’의 부제 현

동국 26집

선배들이 사랑스런 후배들의 열정이 엮여진 26집은 동국 26집이다. 여기서는 ‘특집’과 ‘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우들이 ‘동국’ 26집의 밑세(?) 정도는 미리 말할 수 있도록 간략히 알려드리겠다.

철학의 정립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위해 쓰여진 책으로 1989년까지 계기된 갖가지 반론들을 대상으로 엮였으며, 그간 사상정립의 혼란스러움을 체계있게 정리했다.

학술신간

한국도서관등본 변혁기에 처해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경제운동에 복무하고 변혁의 동력을 지원해야 하는 주체로서 도서관운동의 임무를 정리했고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한국도서관운동의 바람직한 위상을 찾고자

철학의 정립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위해 쓰여진 책으로 1989년까지 계기된 갖가지 반론들을 대상으로 엮였으며, 그간 사상정립의 혼란스러움을 체계있게 정리했다.

학술신간

한국도서관등본 변혁기에 처해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경제운동에 복무하고 변혁의 동력을 지원해야 하는 주체로서 도서관운동의 임무를 정리했고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한국도서관운동의 바람직한 위상을 찾고자

학술신간

한국도서관등본 변혁기에 처해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경제운동에 복무하고 변혁의 동력을 지원해야 하는 주체로서 도서관운동의 임무를 정리했고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한국도서관운동의 바람직한 위상을 찾고자

'90년대의 첨단지식을 전해주는 시사영어사의 ELT교재 및 단행본들

'90 최신간!

TOEFL 600점 전략시리즈 전6권

현재 발간된 목록
문법/STRUCTURE 전략
WORD POWER 전략
IDIOM 전략

나머지 3권도 계속 발간됩니다.
● LISTENING 대책 ● DICTIONARY 대책
● 문법/STRUCTURE 대책

TOEIC 800점 대책시리즈 전6권

현재 발간된 목록
경향과 공략법

나머지 5권도 계속 발간됩니다.
● LISTENING 대책 ● DICTIONARY 대책
● 문법/STRUCTURE 대책

이머시언트 새로운 현실

페이드인 아메리카

일본이 세계경제를 삼키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클라라의 반지

죽음보다 더한 失戀

중요인물 삼킨 땅(上)

생과 死

무엇이냐 / 전쟁이냐 /

貿易戰爭

SONY 스토리

英韓 대연문고 (전 100권)

영문 학습문고 (전 80권)

英作文全集 (전 9권)

나익 영어사어어휘 (Test Your English)

You Know What? (What's in a Name?)

비즈니스英語는 이렇게 하라!

나익 영어사어어휘 (Test Your English)

You Know What? (What's in a Name?)

비즈니스英語는 이렇게 하라!

나익 영어사어어휘 (Test Your English)

You Know What? (What's in a Name?)

비즈니스英語는 이렇게 하라!

'깜짝쇼'... 애국인가 매국인가

前 주한미대사 릴리의 90년 상반기에는 좌·우익의 대결이 격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90년 벽두에 3당합당과 민주당의 창당 전노협을 결성함으로써 현실화됐다. 이 글은 3당합당의 본질과 향후 정세,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편집자>

머리말

90년 벽두부터 벌어진 3당합당과 민주당의 창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의욕과 당혹감, 정치적 허무주의를 갖게 만들었다.

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그간 군부독재의 공포정치와 권위주의에 눌려있던 국민들에게 사회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추구하고자하는 움직임들을 조직적으로 일깨웠고 이는 노동조합의 급격한 추대와 자주적 농민회의 결성 등으로 나타났고 이의 정치적 실현형태로 여소야대의 4당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일부야당의 당리당략과 군부독재, 미국의 지배세력의 정치적 타산에 의해 뒷받침된 데에, 또 과잉의 욕망으로 진행된 데에 배신감과 제도정치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가 이번 정세개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깜짝쇼'같은 정세개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정치권의 변화를 둘러싼 각 세력의 의도와 역할,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향에 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세개편의 배경과 전망과정에 대한 예상,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을 간단히 짚어본다.

1. 민자당탄생의 배경

4.13호헌조치이후의 위기국면을 치밀하게 조차된 6.29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배세력인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1회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원대 다수의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의 4당구조가 만들어져 이념과 같은 진영과 특수가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이 87년 이후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4당구조는 92년 이후에 있을 지배세력의 안정적 재생산 구조의 확보역시 기약할 수 없게 만들었다.

독립자본으로서의 3계호환이 끝나고 89년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했고 이를 실현할 '강한 정부'의 출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즉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산업구조조정과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 성장세를 지지시켜내고 자본축적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진보 보수정권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던 것이다.

독립자본은 지난 3년동안의 호황으로 획득한 경제잉여를 재생산구

조에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과 증권투기, 사치향락산업에 대거 투자했고 이것이 경기가 침체되자 자금압박과 경쟁력저하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강화된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은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초래했고 대폭늘어난 무역수지는 원화강세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제국주의 독점자본으로부터 시장개방요구가 타당해지고 수입규제조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대한 극복방안으로 나온것이 자본시장의 개방까지 포함한 시장개방이며 노동집약적 경쟁력의 업종전환과 첨단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산업부문의 진출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와 더불어 나온것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요지이다.

87년부터 터져나온 노동자의 자발적 투쟁은 87년에 단위사업장 88년에 지역·업종 노조협의회(연맹)를 거쳐 89년에 전국조직이라는 조직적 완결성을 그려나가 마침내 90년 1월에 20만명 조직원을 가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하게 되었다.

전노협의 결성은 조직원 20만명이라는 숫적인 면 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지는 투쟁력과 조직력으로서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독립자본으로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속에서 안정적인 자본축적구조의 확립을 위해 보수대연합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는 남·북분단의 고착화와 남한내의 친미보수정권의 안정적 재생산구조의 구축이다.

이는 해방이후 일관된 대한정책의 기조였고 80년 중반이후 고르바초프의 내전, 탈냉전 평화정책이라는 변화된 정세하에서 '저강도 전락'을 수세적으로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전개된 남한에서의 반미운동은 잠재우기 위해서 친미민간교섭위원회의 수렴을 꾸준히 진행시켜왔고 87년 이후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내고 있었다.

전 주한미대사 릴리의 90년 상반기에는 좌·우익의 대결이 격화될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은 이념사기가 벌어졌던 그 혼란을 풀이할수 있고 그후임으로 온 공작정치 전문가인 현 주한미대사 그레그의 취임이 이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낸 것이다.

국민여론의 악화와 민심이반 초래

노동조합 축의로 민족대연합 구축 현실

토지공개념 등 개혁조치 물 건너가

합당 후 정세 어떻게 될까



◇민중자유당의 출범으로 민중생존권 보장은 물론 건넌 갈 공산이 커졌으며 독점자본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실현될 전망이다.

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에 독점자본의 이해를 실현시키기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사회경제적 개혁조치(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는 유산이 되거나 미봉책에 그칠 전망이 커졌다.

2. 향후 정세 전망

향후 정국이 지배세력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인가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민자당 내부의 이합집산과 혼란이다. 개헌안이 넘는 거대여당안에 다 양한 정파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정강정책의 수립과 당직 배분을 둘러싸고 이미 그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배분을 둘러싸고 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우기 92년 차기대선의 행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리당략에 따른 각계파의 이합집산은 당분간 계속 내연에 있을 것이며 정국이 위기국면(민심이반과 민족민주운동의 공세)에 가열될 때에 접어들어 이의 대응을 놓고 자체내의 분열로 해서 스스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보수대연합의 완성

여기에 더해 3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과 학생운동의 제기는 반민자당투쟁을 상반기 정국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3.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과 전망

보수대연합의 목표가 민족민주운동세력 그중에서도 노동운동연합이라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이다. 역으로 보수대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역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의 공세 여하에 달려있다 하겠다.

이미 반민자당 투쟁은 시작되고 있다.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을 비롯한 사회 제민주단체들은 '민자당 장기집권유보분쇄와 민중기본권 대확보'를 구상하여 대중집회를 준비중이고 전노협등 대중조직체들의 조직적 참여가 결의되고 있다.

지배세력의 보수대연합에 맞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사급급 준비해야 되는 것은 보수대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계층을 민주대연합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것이며 이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핵역할을 굳건히 세워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배세력의 실정을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선전해냄으로써 이미 지배세력으로부터 이반된 민심을 우리의 전선으로 묶어 세우고 전선을 강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좌익의 공안정국의 사동속에서 외계 투쟁과 전교조가 현재 조합원 증가를 탄압이전 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합당저지, 장기집권유보 분쇄투쟁을 확산하고 민족대연합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배세력의 보수대연합이 민족민주운동을 탄압, 개량화하여 장기적으로 고립,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보수대연합의 본래는 민족민주운동의 성장발전이냐 퇴보냐를 가름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보수대연합의 추진은 민족민주운동의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이번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민족민주운동의 정치력제고와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

동맹로 기존민중운동을 반민자당 일당독재유보 분쇄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운동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이라는 광범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입문시기에 돌입하고 있어 전노협등 대중조직체들이 필연적으로 결합될 것이다.

따라서 급근 입부는 대정권투쟁, 노동운동연합분쇄투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미 지배세력의 공격에 의해 침탈당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이 때를 맞아 민중대연합이 반민자당투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투쟁전선에서의 후퇴는 그간 쌓아왔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물론 변혁운동의 상당한 후퇴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민중민주운동세력은 이제 이 반민자당투쟁의 전선에서 투쟁의 과정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성과물까지 민족민주운동의 강화로 귀결되게끔 헌신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고성범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화선전부장)

대중 속으로

“파시즘적인 보수대연합을 저항할 노동운동세력 모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합시다!”

겨울비가 전

동약교섭을 적시던 지난19일 오후3시 도시관앞에서는 '학생투쟁위원회'발족식이 열리고 있었다.

1백여명이 채 안되는데도 학생들은 차가운 비를 피하며 발축삭에 참여하고 있었다.

땀방울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나온 학생들이 땀방울이 내다보기도 하고 지나도 학생들은 비를 맞으며 집회를 주도하는 단대

또한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등 사회적 경제적 개혁조치의 유산으로 아직껏 국민들의 배신감과 천정부지로 튀고있는 토지 및 집값상승과 기층민중의 생존권요구에 대한 폭압적 탄압에 맞서는 대중투쟁은 국민여론의 악화과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것이다.

3당합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배제된 호남권의 정치적 소외감과 지역대립의 심화, 제도정치권내에서의 민자-평민의 대립 또한 첨예화 될 것이다.

지난해 학생들은 학원자주화 투쟁을 벌이면서 대중적 투쟁을 촉발시키지 못한것을 가장 크게 비탄했다.

대중들이 대거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회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음에 따라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어야만 했고 지금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사람이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가.

사람은 많다.

흔히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단결의 중심에 서려 하지않고 서로간의 차별성과 대중의 학부위장들을 공급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다.

흔히 볼수 있는 동약의 집회전 형이라고나 할까.

얼마나 많은 과포론과 단대로 끝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속에 진행되던 집회는 이윽고 투쟁선언문 낭독과 화형식을 마치고 가두선전전을 벌이던 해산했다.

역시나 하는 마음과 함께 대중과 유리된 발족식은 끝을 맺었다.

낮은 의식수준만을 탓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성적 틀음에 사람사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타성적인 대답일까?

스스로 '단결의 구심'이 되어 한평이라도 더 학생회사업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것이다.

(유 권준 記者)

SHARP

“젊은이의 꿈과 미래에 언제나 샤프가 있습니다.”

다양한 3가지 필을 드립니다.

- ① 정밀한 필
- ② 부드러운 필
- ③ 영문 필

PA-3100H (검정색) QL-800H (아이보리색)

- 한글 영문 혼용 필
- 자동수정
- 필의 위치 (RELOC)
- 반자동 필기
- TAB MARGIN 설정
- Repeat (반복 Key)
- Print (인쇄) 10, 12, 15
- Half Back Spacing (1/2배간격)

PA-3200H

- 한글 영문 혼용 필
- 4,500자 메모리
- 자동 영문인식기능
- 삽입식 카세트
- 한글 영문 자동 인공자기가 이루어져, 자동모자간격조정(FPS)
- 필지 13

제품 PA-3130N ●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 한·영 혼용 ● 8,000자 메모리, 편집기능
- 16자 Display 편집기능

미래를 향한 공학도의 파트너!

EL-512S

- 12자리 ● 4선식
- 함수메모리 13개
- 4개 공식기억
- 256Step

EL-556

- 12자리
- 함수메모리 13개
- 3연속 1회 방출식

EL-5100S

- 12자리 ● 4선식 ● 4선식 ● 4선식
- 함수메모리 13개 ● 함수메모리 13개 ● 함수메모리 13개
- 4개 공식기억 ● 4개 공식기억 ● 4개 공식기억
- 256Step ● 256Step ● 256Step

EL-9000

- 12자리 ● 4선식 ● 4선식 ● 4선식
- 함수메모리 13개 ● 함수메모리 13개 ● 함수메모리 13개
- 4개 공식기억 ● 4개 공식기억 ● 4개 공식기억
- 256Step ● 256Step ● 256Step

사프전자산업(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신빌딩 5층)
(여의도 북쪽회사당 옆)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파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지식인 층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부하부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두가 강의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중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힐빌딩
274-4000, 274-6821-2

I CAN DO

시사영어학원

총각뚱 뚱 뚱 734-2442

週3日 투자!

1週日 효과!

시사영어학원에서는 “週3日 강의”로 수강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지루한 일주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週3日 강의”의 새로운 선택과 만나 보십시오.

새로운 교육과정은 반드시 새로운 효과를 얻게 해 드릴 것입니다.

“週/3/日/강의”

“새벽반은 週5日 강의”

- 월 수 금
- 화 목 금

월 수 금 화 목 금

학생회 활동가의 자세에 대한 비판

'단결의 구심' 되려는 사람없다

- ...대중이 믿고 따를 수 ...○
- ...있는 현실적인 활동 ...○
- ...기의 모습은 어디로 ...○
- ...있는가. 이것이 이글 ...○
- ...의 문제의식이다. 탄 ...○
- ...압은 강고해지고 그 ...○
- ...에 대응하는 학생의 ...○
- ...힘은 무기력한 지금 ...○
- ...의 현실을 올바르게 ...○
- ...악하고 우리 스스로 ...○
- ...와의 싸움이 무엇보 ...○
- ...다도 시급하다. 자기 ...○
- ...비판은 뼈아프지만 ...○
- ...패배를 막을수 있다 ...○
- ...는 점에서 중요할 것 ...○
- ...이다 (편집자) ...○

기획점검

I.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동아에서 벌어진 학원자주화투쟁을 살펴보면 모든 평가에 '대중투쟁이 촉발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투쟁이 안됐을까"
"학생회체계가 이원해서 대중투쟁이 안됐어"

그렇다. 학생회체계가 이원되고 대중투쟁은 촉발되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88년 학원자주화투쟁은 학원의 주인인 학생·교수·직원·주인임을 확인시켰고 그들의 노력이 학원자주를 앞당기는 유일한 힘임을 보여 주었다.

전국 모든 힘의 근원은 대중이며 대중에게서 유리한 활동은 패배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중투쟁이 촉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대중을 학원자주화투쟁의 구국운동의 주인으로 이끌어야 할 대중간부들이 대중들이 있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말에 틀림없다.

수업시간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학과공부에도 별관심이 없으며 대개의 시간을 학생회실에서 보내는 발산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으며 하였는가.

대중을 이야기하고 대중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중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모범으로 설득하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대중을 위한다는 학생회는 많았어도 학생대중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회는 적었던 것이다.

중을 대해왔었다는 것이다. 대중과의 관계가 신뢰로 이어져 있지 못한 것은 그만큼 대중이 부추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믿음, 애정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중에게는 그러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따라오라 한다던 누가 따라 오겠는가. 대중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 하나하나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또, 관성적인 사업작품을 들 수 있다.

지난달, 친미반동아협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선전이 이루어졌는가. 지난해 학자투 협상과정, 파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가.

그것은 대중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관성적으로 집회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안일한 사업작품 때문이었다.

일례로 각 학과 사무실에 가던 학생들이 "학자투 요새 어떻게 들아가요", "잘 됩니까"라며 묻는 사람이 많다.

교수님들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관성적인 사업작품은 대중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신이라는 해악적인 요소를 깨끗이 청소하는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무의식중에 대중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가 대중을 점점 학생회사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경꾼으로 내몰아 버리는 이보다 큰 해악은 없는 것이다.

III. 학생회체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학생회체계의 이원화를 들 수 있다.

과 학생회실에 가보면 X×제안서, X×문건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적인 학생회는 결코 무슨 무슨 제안서, 지침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나의 문건이라도 상당수로 하루의 이해와 요구를 고민하는 속에서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 사업방침과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곧 여러 대중을 학생회에 참여시키는 길이다.

88년에는 학자투 집회가 끝난 후 불상할 잔디밭에서 학생회실에서 파토론회와 단대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지난해 상충교섭위원회의 사업방식이 그러한 하부단위의 노익을 활성화

페업불안짓고 아줌마노동참



◇단병호 전노협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아건설 창동공정 노조는 개별노조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노협 창립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단병호 위원장.

열성조합원 구타, 노조사무실 기물을 파괴하고 이날 저녁에는 부위원장 장부 감금하고 협박했다. 이어 2월5일 반집행부는 자체주도로 전직노조간부 주임, 반장등 1백여명으로 기존 노조를 무시한채 집행부를 꾸렸던 것이다.

한 노조원은 "세로 꾸린 집행부의 간부가 회사측의 간부와 자주 만나는 것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그리고 원래 주임이나 반장은 원래 노조원으로 조합원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으나 태업을 하면서 회사와 노조사이에서 압력을 받다가 회사측으로 돌아선 집니다"라며 "조합원지 조합원과 반대파 조합원이 현장에서는 거의 말도 하지 않으며 집으로 방문해서 아내나 부모를 통해 집행부에서 탈퇴하기를 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 말했다.

전노협집행부는 지난 2월6일 서을 부부 경찰서에 '지난 2일 5시경 김천중등 18명이 불신임 투표과정에서 목적을 파부으며 사무실 집기를 파괴하고 주요서류를 불태웠으며 노조 교육부장 김유원(30)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직노조의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여기에 맞서 반집행부는 '정세가 어려워 조업에서 너무 강하게 나와 타일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8일 "한집행부가 지난 2일 '조합원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에서 '불신임안을 제기한 노조원들은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먹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같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87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민주노조로서의 활동을 알장서 수 행해왔던 동아건설 창동 노동조합이 최근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제기되면서 노-노 싸움으로 위장된 대표적인 신중 탄압사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2일 총회가 소집되어 집행부 불신임 투표(찬성 1백52, 반대 1백39, 무효 1)에 들어갔지만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자 '파만수가 넘었으니 현 집행부를 물러가라'며 폭력을 사용해 집행간부 및

수배 중이던 노조사무장을 전격 해고시킴으로써 시작됐다. 조합측은 사무장 해고에 갖는 의미는 조합원과 공유, 투쟁을 결의하는 기점으로 삼고 상근자 단속농성, 머리카락,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벌여 나갔다.

이후 투쟁의 일환으로 태업이 50일째 계속되자 회사측은 암암리에 '이러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등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노조반대파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표면상 현집행부·반집행부·회사의 잇따른 고소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회사와 반집행부와의 결탁을 반증해 주는 예로 반집행부의 핵심인물들이 일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대우를 정비해야 할 시기에 적면대적이다. 예나하면 전노협의 활동방식 즉 반집행부 투쟁과 생존권 투쟁인 임금투쟁에 함께 동맹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현재는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형勢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결코 우리들의 싸움은 노-노 싸움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리고 모두의 시선이 모아진다면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끝내 승리는 우리 것을 될 것입니다"라며 울컥한 주먹을 들어보이는 한 노동자의 모습에서 굳센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듯 사태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지금 동아건설 창동 노동조합은

"결코 노-노 싸움 아닌 노-자 싸움, 동아노조 파괴는 전노협 약화 음모"

동아노조 파괴는 전노협 약화 음모

"관성은 무관심과 패배만을 선포, 우월의식, 불신이 곧 사대 잡사상" 대중은 사무실에 있지 않다

알고 싶어서이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알려주고 함께 고민하며 일을 해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없는 집회에서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생활 현장에는 없는 아이라니가 생기는 것이다.

일상적이고 소규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총학은 단대에 단대는 파에만 맡기고 서로 단결의 구심이 되기를 주저한다면 결국 누가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서, 투쟁과정과 의의를 홍보하는데서, 동료와 상호검열하는 데서 관성적이란 더이상 어디서 대중을 촉발시킬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관성-사람이 정세와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역으로 정세와 생활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곧 생활과 사업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부담과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를 계승하고 혁신하여 안일을 펼쳐 버리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화시키지 못함으로써 대중과 멀어지고 학원자주화투쟁을 퇴보시키는 요인이 되고 만 것이다.

하나의 문건 한번의 토론회라도 하부체계를 존중하고 실정을 토대로 진행시킨다면 문건은 줄어들지라도 집행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모든 사업, 모든 투쟁의 주체는 사람이며 사람이 자주적으로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된 자세에서 시작한다.

현재의 이원되고 늘어서 버린 규율과 관성적인 자세는 결코 주인으로서의 자제가 아니다.

신화와도 같은 88년 학자투를 모범으로 삼아 현재의 설정과 처지에 맞는 생활방식과 작풍으로 노예의 족쇄를 끊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기이다.

'우, 주장하는 것보다 스스로 단결의 구심으로 모범으로' 서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집부)

東國의 기상 온누리에 펼쳐 白象像건립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힘차게 전진하는 90년대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전 동국인이 동참한 가운데 민족과 겨레의 자랑으로 동국을 우뚝세우고자 힘을 모았던 흰 코끼리상상이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국의 기상과 건학이념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상의 건립을 계기로 하여, 학교발전은 물론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더 굳게 뭉치고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989학년도 졸업식과 더불어 제막식을 가지오니 꼭 참석하시어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막식 : 불기 2534년 2월 26일 오전 10시
장 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백상탑 앞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상징탑건립 추진위원회

학생증 추가 및 재발급 안내

1. 학생증 추가 발급 및 재발급 대상
가. 추가발급대상: 신입생증 미 발급자, 복학생, 편입생
나. 재발급 대상: 재학생증 분실자
2. 학생증 발급절차: 학생증 발급 신청서 교부(장학과)
3.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가. 학생증 분실(재발급): 신청서 접수시 재발급 수수료(W1,000)를 경리과에 납부후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
나. 복학생 및 편입생(추가 발급):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
4. 신청기간: 1990년 3월 2일 부터 4월 15일 까지

학생처장

복학 및 재입학 안내

'90학년도 제1학기 복학 및 재입학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신청기간: '90. 2. 26(월) - 2. 28(수)
2. 접수처: 학적과
3. 구비서류
가. 일반 복학자 및 재입학자: 복학 및 재입학원서 1부
나. 군 복학자: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다. 전역예정자: 복학원서, 전역예정 증명서 각 1부
4. 자격
가. 복 학: 학사내규 4-(2)-1), 2)항에 의거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교양명 휴학자로서 개학일로부터 30일 이내(3. 31)에 전역할 자, 다만 전역예정일까지 전역하지 못한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나. 재입학: 1)학칙 제53조 ①③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적되었던 동일학과에 여적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89학년도 이진 입학자로서 제적되었던 자는 제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원이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한다. (재입학 허용기간은 군부부 기간도 포함)

교무처장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안내

(학생처 제공)

1. 90년 징병검사 대상
△ 71년 1월 1일~71년 12월 31일 출생자 (19세)
△ 기타, 연기 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기 기간이 끝난자 (재학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판정은 졸업하는 전제에 징병검사)
2.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연기절차
사.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으로 부터 통보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적된 연기처리, 단 대학이상은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자
△ 제한연령
전문대학 22세, 4년제 대학(교)24세, 대학원 26세
3. 입영일 안내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채 본적지 구, 시, 읍, 면에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1. 신고대상: 예비군 신분의 학생 및 교직원
① '90년도 복(입)학하는 자(대학원생 포함)
② 복수전공자 또는 학점미달 졸업불가자
③ '90. 3. 1. 부로 신규입용 또는 연임되는 조교신분의 교직원 (학생 조교 제외)
2. 신고기간: '90. 2. 20.(월) - 3. 9.(금) 17:00까지
3. 신고장소: 비상계획과 (회화관 1층)
4. 신고시 본인 지참사항
① '90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입용장) 사본 1부
② 증명사진 1매
③ 도장
④ 병역수첩 또는 전역증서: 신고시 인적사항 참고
5. 신고양식: 비상계획과 비치
* 위 대상 학생은 신고서 대외적용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현 제 예비군 편성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또는 취업직장 예비군 중대에 2월 이내에 제출할 것.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기간내에 필히 신고할 것.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공수회 재단 설립 반대투쟁 결의

오늘은 23일 임시 중앙총회서 사태수습 거론

대화단절의 일방적처사로 "視界제로"

총학생회, 신입총장서리 반대투쟁 결의

동국 84년 역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16일 재단이사회의 독단적인 총장서리 선임을 둘러싸고 교수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 총장선출을 위한 교수대의 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으며 중단을 재단의 갈등이 구제되기를 이사진 전 원회직이 결정했다.

또한 신입 총장서리에 대한 학생회측의 강력한 반발로 오는 23일 거행되는 학위수여식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총장서리 선출을 위한 전체 교수회 비상총회가 지난 16일 열리라는 상황에서 같은 날 재단의 날치기식 일방적 결정은 사실상 총장서리의 한시적 기능을 강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 교수회는 분명히 재단측에 교수회의 총장 선출을 통보했으며 이에 관한 긍정적 답변과 아울러 지난 16일 총회에서 서리후보 2인을 선출, 재단에 추천하는 문제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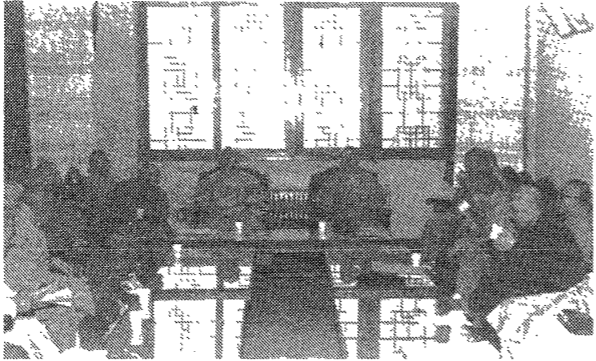
것도 재단이사회 회기(15일~23일) 중인 16일이야 총회날짜를 잡았는가 하는 점이다. 재단 측에서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총장선출은 교수회의 주도적 참여로 이뤄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었기에 그 이전에 실시했어야 옳았다는 지적들이다.

총장서리는 한시적인 기능을 갖고 민주적 총장선거까지의 원활한 준비와 학사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학생회는 이번이 선

자극력을 동원, 선거편을 호리개 했으며 이번 재단결정과정에도 입찰한 자금을 동원하며 막후 취임을 계속해온 학자투정신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원 주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관 졸업식과 입학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리고 학내분규로 인한 학교 명예 훼손을 고려, 일단 총장서리 체제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른 중단의 재단이사회 전



△동대 사태 수습 대책위는 지난 20일 총무원에서 본교 사태에 책임을 갖고 재단 임원의 총 사퇴를 논의했다.

임원 申國柱총장서리에 대한 선거무효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회는 △부정입학 및 전체 관계가 없고 △인맥과 발에 연결되지 않은 중도적인 물이여야 하며 △6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중에서 민주적 총장 선거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 총장서리에 선출돼야함을 주장했으며 총장서리는 이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이른 중단의 재단이사회 전

아울러 새로 구성되는 재단

현 난국 타개 위한 총고와 비판 수용할터

겨울방학내내 난항을 거듭했던 총장선출문제가 재단이사회에서 申國柱(정치학)교수를 선임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문교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직후 申총장서리를 만나 취임전반에 관해 간략한 견해를 들었다.

소식을 접했으나 이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 학자투 힘의사항의 이행은 어디서 시작하겠는지? 학자투에 관해 아직 완전한 이해를 못해 학생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겠다.

는 바램이다. 총장서리로서 제임하는 기간동안 가장 우선시할 사업은 무엇이며, 총장후보로 나섰을 때 제시한 공약의 실행 방안은?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든 총고와 비판을 경χη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쓰러린 상처의 '치유·안정·정상화'를 위해 헌신하겠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전동국인의 화합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강의후 교수와 학생들이 잔다발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서로의 불신부터 해소할 생각이다. 공약한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실업자들의 기부부 유도하겠다."

앞서 말한 주제들의 화합, 재정해결등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데 한테? "현재의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상적인 대답이 더러한 한도 있다.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해 재단기간중 주도할 사업계획은 세웠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학교를 정상화시킨후 추진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서창훈 記者)

인터뷰

申國柱 총장서리

은 구성하고 있는지? "총장실을 항상 열어 놓겠다. 또 교수와 학생, 학교당국과 학생회는 상호협조관계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화를 갖겠다. 이는 동학의 주인이 하나됨을 위해서 절실한 사항이며, 방식에 있어서는 총장과 학자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의 형식적인 자리보다는 한사람의 교수와 학생의 입장에서 의견교환을 했으면 하

학처장급 대폭인사단행

서울캠퍼스 대학원장에 李載昌교수등

李載昌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29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불교대학장을 제외한 각 대학원장 및 학실·처장이 전면 개편된 이번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장=李載昌(불교학과) △행정대학원장=鄭允式(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장=趙熙榮(경영학과) △교과대학원장=鄭址鎭(수학교육과) △사범대학원장=吳洪植(지리교육과) △예술대학원장=俞賢穆(연극영화학과) △공과대학원장=李承勳(기계학과) △사범대학원장=吳洪植(지리교육과) △예술대학원장=俞賢穆(연극영화학과)

△공과대학원장=李承勳(기계학과) △사범대학원장=吳洪植(지리교육과) △예술대학원장=俞賢穆(연극영화학과)

신입생 적응지도 다채롭게 진행

학교소개등 학생처-비총-단대별 주관으로

'90학년도 신입생적응지도가 학생처 주관으로 지난20일 오전 10시부터 신입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전반적인 학교 소개와 수강신청, 학칙, 병사법 무안내용 대학생활안내가 있는 뒤, 대학의 본질과 불교의 이념을 기본으로 한 동국대학의 교육, 정보화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해 김태홍(무학학과)교수의 강연이 각각 있었다.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열렸다. 비총 기획부장 백종민(사학·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한 슬라이드 상영과 총공원이 있었으며,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전교조영화상영, 아리랑의 노래 공연, 백산의 응원시범으로 열렸다. 단과대학별취취 신입생적응지도가 오늘(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학생처 소개, 문화공연등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불교대학생회는 오늘(21일) 수강신청 후 선후배 상견례와

만해시비담사를 가졌으며, 신입생회영 수련대회를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문과대학생회는 M-T를 오늘(21일)부터 오는23일까지 총남홍성 청석수련장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이과대학생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속리산대에서 신입생적응지도도를 갖는다. 이 기간에 학자투상황소개, 문화배공연등이 펼쳐진다. 법과대학생회 적응지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속리산에서 열려 체육행사와 대동제 등이 생활문화회향을 주제로 펼쳐졌다.

사회과학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속리산파크호텔에서 열렸다. 경상대학생회는 오늘(21일)부터 오는23일까지 총남홍성 청석수련장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이과대학생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속리산대에서 신입생적응지도도를 갖는다. 이 기간에 학자투상황소개, 문화배공연등이 펼쳐진다. 법과대학생회 적응지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속리산에서 열려 체육행사와 대동제 등이 생활문화회향을 주제로 펼쳐졌다.

'부정입학' 집행유예

李총장등 관련자 6명전원

지난달 8월31일 부정입학관련·특정경제가중처벌법(형법) 등으로 구속된 黃鍾經 前이사장·李載勳 前총장등 관련자 6명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재부장판사)는 지난2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경해야 할 신입생 선발과정에 돈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것은 잘못"이라 말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회개하고 학사행정이 바뀌는 등 정상을 정착한다"며 선고유예를 밝혔다. 한편 관련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바로 다음날 김동경변호인을 통해 항소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李載勳(前총장)=징역 2년·집행유예 3년 △黃鍾經(前재판

농과대학생회에서는 내달 3, 4일 양일간 강원도 산강호수에서 신입생적응지도도를 갖는다. 공과대학생회는 오늘(21일) 중앙당에서 행사를 갖는다. 사범대학생회는 오늘(21일) 오전10시 설문조사등 행사가 펼쳐진다. 예술대학생회는 과별로 행사가 치러졌다. 이과대학생회는 오는 24일 동국관(LA01)에서 오후3시부터 적응지도도를 갖는다.

비상총학 건설

신임단대장 중심

당면한 학내문제해결의 적극적 모색과, 오는 3년 총학선거출발까지 신임 단대장 중심의 비상총학행회가 지난 1월26일 건설됐다. 본관(2층 농성당)에서 각 기구별 인순인제를 마친 비총집행부 구성은 △비총총장=김경환(사학·4) △교과대학장=박정규(국문·4) △학자투위원장=강병득(미술·4) △기획부장=백종민(국문·4) △사회부장=정명호(인철·4) △연사부장=김일태(역교·4) △문화부장=이병숙(수학·4) △학술부장=박준(법·4) △신진부장=박원주(국교·4) △신진부장=김미숙(수학·4)등이다.

대총서 감사 실시

서울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안성준 국민윤리·3)는 지난 15일 학생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1989년도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단대대의원회장등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는 사업감사와 예산감사로 나눠 학부위를 오는 23일까지 마치고, 총학생회와 학자투위원회는 오는 26일 이후에 감사에 들어간다.

학사일정 발표

교무처에서는 90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했다. 개강은 내달 2일로 이날 입학식도 함께 거행되며 수강신청학인원 및 정원은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각 단과대학 교학처에서 실시한다.



경주 총학 집행부 개편

여학생회도 임원진 구성

경주캠퍼스 제1대 총학생회(회장=백대진·영문·3) 및 제6대 여학생회(회장=한지영·영문·3) 임원진이 지난날 19일과 6일 각각 확정됐다. 확정된 임원진을 살펴보면 총학생회간부 △총무=박계수(관공정영·3) △기획=정장민(국문·3) △연대사업=강종남(국문·3) △홍보=김현미(국사·3) △학술=박윤재(회계·3)

△분회=장명수(영문·3) △총무=이정민(경제·3) △재무=김병철(무역·3) △학자투위원장=관동혁(법·3) △취임대회국장=이경성(한문·3) △학부위원장=이상훈(관공정영·3) △사회=미정 △인원위원장=미정 등이다. 여학생회는 △총무=김계수(국교·3) △홍보=김현미(국사·2) △문화=김경현(고미사·2)

△사회복지=상성희(철학·2) △기획=미정 △홍보=미정 등이다. 불교대 교직이수 문교부로부터 승인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의 승인 사업중 하나인 '교직과정'이수가 지난 3일자로 문교부로부터 최종 확정, 승인됐다. 이번 교직과정은 불교대 89학년 재학생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이수할경우 불교학과와 신학과의 종교교사자격증을 인도철학과는 철학교사자격증을 각각 취득하게된다.

신춘문에서 '동국문학' 과시

한만수·송희복·채영식·조중의·이윤학 등문 등 5명

급년도 신춘문예에 본교 동문 5명이 대거 입상, 동국문단의 전봉을 다시 한번 빛냈다. (관련기사 8면)

신춘문예에 5명씩 당선되는 이번이 처음 일로 평문부문 3명, 시 1명, 소설 1명등이다. 한만수(본사 동인·국문84주) 동문이 동이일로 평문부문에 '우리들과 너희들 그리고 그 사이-김희하'를, 송희복(국문86

4주) 동문이 지난 8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이어 '시적화자의 배후리'와 단편 연화공간'으로 초이일로 평문부문에, 또 국문과를 84년 졸업해 현재 한성여중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채영식 동문이 '미당시의 정념'이라는 '방향'으로 세계일보 평문부문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주평지서 趙重義(85주·중문) 동문과 李允學(국문·4)군은 각각 대구매일신문과 한국일보

90년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제1회 '보문문학상'(경북대) 소설부문에 당선된 바가 있는 송희복은 매일신문 단편소설부문에 응모, 소설 '새사람'으로 당선됐다. 지난 88년 '불교문학' 신춘문예상 시부문에 '모산도'가 당선되어 당선된 바가 있는 李潤은 한국일보 시부문에 응모, '침소부' '제비집', '달팽이의 꿈'으로 당선, 등단하게 됐다.

서로 내물은 吾肉之計

○꽃피는 출삼월이면 그 리운 남이 오신다면네 동약은 아적도 차디찬 겨울.. 재단이사회는 申國柱교수를 총장서리로, 교수회는 閔丙天 李昌培교수를 총장후보로, 중단에서는 지난21일 세이사건을 구성하는 등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사분오열하는 듯한 느낌.

민정-민주-공화 3당의 합당이 그 내용으로 노태우 국부, 김영삼주연, 김종철 조연으로 모쳐에서는 '야심의 대작', '홍분과 건강으로 그득한 역사적 대전환을 그린 작품'이라 고 지화자 찬중(?) '부부 아닌 남편'이 서로 정을 통합이란

거리로 등장했는데, 지난 16일 동국관에서 총장서리 선출을 위한 임시교수총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2인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란한(?)사태때문에 총회 폐회 직전에 의장인 송교수가 의장직을 사퇴한다며 전 해교수회를

○"전국에 계신 기업주 여러분! 여러분의 노동자들이 행의를 일으켰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이 112만 누르십시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지난 2일 초 모 일간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세인들에게 다시한번 정부측의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각인시켜주었는데..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병사사건, 미장원 강도

새봄 특선프로 노태우 극본-김영삼 주연 '한지붕 세가족'개봉

혹자의 평대로 잘하는 거라곤 선출해 대는 것밖에 없고, 그럼에도 목표를 없으니 언제 학원지주의 김지국이라도 마쳐볼까..

의 동의를 구하지 이에 질세라 경주 교수회마저도 사퇴를 표명, 동의없이 날치기(?)식으로 통과했다.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무조건 사퇴나 해봉 보자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민주정정은 누가 뽑는 건지 본회전투에 답답하지만..

다이얼만 둘러보면

한지붕 세가족공연

○'90년 새봄맞이 특선프로' '한지붕 세가족'이 정화극장에서 개봉돼 비난의 환호속에 연일 상영중이라고..

급하긴 급하군

○스피드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맞는 초고속형의 사건이 생겨 세인의 흥미

우끼비의 노래

고영섭 <불교대 불교학과>

두껍아 두껍아 한 집 힐고 새 집 짓자
이 한 몸 늘릴 집 한 채도 없는 내게
달동네에 뛰어드는 무허가 집을
자진 철거하는 것은 사치이지만
더욱 튼튼한 집과 새끼를 낳기 위해
실날같은 눈썹이 세모 대가리를 들고
삼단같은 헛바닥을 날름거리는
독오른 배암들을 나는 만난다.

비료값도 안나오는 고무밭에서
네 아가리속으로 나는 들어간다
들숨과 날숨이 막혀 죽어가면서
네 몸속에서 물을 뺏고
새끼를 낳는다
내 몸에서 쏟아내는 독기가
너의 몸을 마비시키면
그 주검을 거름으로
나는 다시 새 집을 짓는다.



문학도들에게 가장 권위있는 문단
단위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금년도
신춘문예에서 시·소설·평론부문에
분교 동문 5명이 당선. '동국문학'
의 맥이 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90년도 신춘문예에 당선된
동문은 시부문에 이윤학(경주캠퍼스
중문과 졸업예정)씨, 소설부문에
조중의(경주캠퍼스 중문과 졸업)
씨, 평론부문에 한만수(서울캠퍼스
국문과 졸업)씨, 송희복(서울



신춘문예... 참신한 신인문학도 배출에 기여 평론두각으로 창작 치중했던 '동국문학' 변화 예고

캠퍼스 국문과 졸업)씨, 채명석(서울
캠퍼스 국문과 졸업)씨 등 5명으로
특히 5대주요일간지중 3대일간지
에서의 평론부문 3인 당선은 매우
큰 성과로 신춘문예에서 길이
남을만한 보기도된 일이었다.

또한 그동안 창작에만 치우쳤던
'동국문학'의 한계를 넘어 문학의
위상을 제정립하고 비평에 대한
'동국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서쪽으로 향하기에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 당선된 작품
의 개별적 소고와 '신춘문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한다.

한국일보 시부문에 당선된 이윤
학씨의 시들은 이전의 시들과는 달리
제목부터 선명한 '정수부' '제비
집' '달팽이의 꿈' 등 구체적 삶이나
상상력의 실제함을 시로 재밌게
표현했다. 그 재미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따뜻한 애
정에서부터 나와 각자의 삶을 아름답
게 만들어 주는 독특한 시적공간
을 주선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사
랑의 의미를 깨닫고 경건하게 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단편소설부문에 당
선된 조중의씨의 '세사상'은 광우항
쟁을 다룬 작품이다. 가해자의 입
장에서 광우항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던 용지현은 문장과 주인공의
뛰어난 심리분석으로 단편소설로서
의 압축된 구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아일보 평론부문에 당선된 한
만수씨의 '우리들과 너희들, 그리고
그 사이 - 김해화론 -'은 노동문학
의 주제가 노동자만으로 되어야하
느냐에 쟁점을 두고 있다. 필자인
한만수씨는 학부때부터 10년이상
문학도로서의 꿈을 키워왔는데 '순

유로는 발행목적에 어긋난 정치평
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기도
사실 그들은 애초의 발행목적에 입
으로 왜곡,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인데 정
치평론을 실었다는 이유로 정간처
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언론·사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라고 이 전화연장을 취재자, 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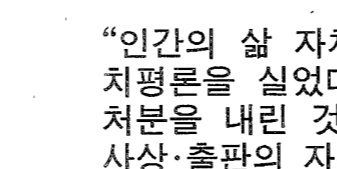


다는 뜻이 한 배의 사람들이 수대
의 트럭을 몰고왔다. 이윽고 이들은
사무실내 보관중인 5만권의
재고분과 기타 중요서류들을 싣고
유유히 사라졌다."

마지 영화속에서나 나옴직한 일
들이 지난 1월11일 노동문학사 사
무실에서 일어났다. 아니 벌써 오
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작년 12월29일 저희 노동해방문
학에 대한 3개월간 발행정지조치가
문공부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그 이

유로는 발행목적에 어긋난 정치평
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기도
사실 그들은 애초의 발행목적에 입
으로 왜곡,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인데 정
치평론을 실었다는 이유로 정간처
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언론·사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라고 이 전화연장을 취재자, 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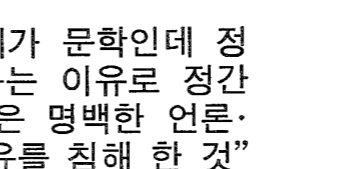


다는 뜻이 한 배의 사람들이 수대
의 트럭을 몰고왔다. 이윽고 이들은
사무실내 보관중인 5만권의
재고분과 기타 중요서류들을 싣고
유유히 사라졌다."

마지 영화속에서나 나옴직한 일
들이 지난 1월11일 노동문학사 사
무실에서 일어났다. 아니 벌써 오
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작년 12월29일 저희 노동해방문
학에 대한 3개월간 발행정지조치가
문공부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그 이

유로는 발행목적에 어긋난 정치평
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기도
사실 그들은 애초의 발행목적에 입
으로 왜곡,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인데 정
치평론을 실었다는 이유로 정간처
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언론·사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라고 이 전화연장을 취재자, 기더



다는 뜻이 한 배의 사람들이 수대
의 트럭을 몰고왔다. 이윽고 이들은
사무실내 보관중인 5만권의
재고분과 기타 중요서류들을 싣고
유유히 사라졌다."

마지 영화속에서나 나옴직한 일
들이 지난 1월11일 노동문학사 사
무실에서 일어났다. 아니 벌써 오
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작년 12월29일 저희 노동해방문
학에 대한 3개월간 발행정지조치가
문공부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그 이

역동하는 동국문학, 90년대를 기대한다

수문학뿐 아니라 참여문학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문학을 하려는 후
배들에게 "현재에 열심히 생활해야
있다는 유언한 사교를 할 수 있
어 문학을 중요하게 가질 수 있다"
며 문학도로서의 성실성을 무엇보다
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세계일보 평론부문에 당선된 채
명석씨의 '미당시와 정념부의 방
법'은 비평의 원류라고 평가되어지
고 있는데 채명석씨는 현재 한성여
중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기보다는 잠복기로 생각한다"는 송
희복씨는 동국문학이 부활하고 있
다며 "90년대에는 기대해도 될 것"
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번 90년도 '신춘문예'는 전반적
으로 시는 뛰어난 반면 단편소설은
줄어들 추세이다. 단편소설은 작
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신인이 많
이 장간지 문단에서의 문이 넓어졌
고, 각종 문예지나 무크지를 통한
문단도 활발하게 구제되어 일년에
한 번인 '신춘문예'에만 매달릴 필요

까지 이르러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선 담당자들은 "결
국 신춘문예란 한사람의 작가·시
인으로 글을 써도 된다는 확인일
뿐인데 그 의미 이상의 큰것을 누리
고 환상을 가지려 하는 것"을 문제
로 들고 "문단에 사형심을 조장하
는 중독물품들의 일체 행위를 철저

가 없다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
고 있다.

작품경향은 작년까지는 노동현장
문제나 정치권력과 민중의 갈등감
은 첨예한 현실에 눈뜬 참여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그렇지 않게 타향에 갔다고 한다.

'신춘문예'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지 지적인 것으로는 중독물품·표
절등 문인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문
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90년도
'신춘문예'는 특히 워드 프로세서
사용으로 인한 중독물품이 크게 문
제시 돼 중독물품에서 당선취소에

다.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
업·소득·교육등의 영역을 설정,
그 중간치를 0으로 붙여 우리 국
민의 행복도는 '미이너스'를 기록
하고 있다. 행복도의 직업별 산
출결과에 따르면 전문직을 제외하
나 판리,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직
업인은 불행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적성에

한 현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
도록 사회는 우리에게 세뇌시켜
놓았다. 이에 취하는 기회조차
안지 못한 사람. 또 몇 백대 일
의 지열한 바늘 구멍을 뚫지 못
한 사람이 수십만을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졸실업
자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어가
면서 점차 최고 학부보다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용학과
나 전문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로 높더라도 임금수준·승진기회
등에서의 차별과 소외는 여전하다.
결국 업적주의, 학력주의의
사회는 대졸실업자를 증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본고는
올해 졸업자에 대한 취업율이 아
직 적게되지 않은 상태로서 얼마
만들의 인력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졸업장을 건 그들의 가슴
에는 이미 교육의 거처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 있으리라. <愛>

맑은이

최경인 (9)

가장 바람직한 중학생을 제로
다음 중 몇번일까?

1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3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4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5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6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7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8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9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0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1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2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3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4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5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6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7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8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19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0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1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2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3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4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5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6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7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8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29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30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31번 재능이 밝고, 교우의 칭찬
받고, 학생들은 따수를 쳐준다.

민자당의 파벌구조와 권력암투 유종필
권력파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월계수화·반박철연계 등 민자당내 각 정파의 계산과 전략은 무엇인가?

김영삼 변질이력서 정치자금줄 임경민
영원한 중부사'로 불려진 김영삼, 대권야욕을 위해 솔하게 배신해온 그의 변질이력서, 당원을 비난속에 놓여, 해외발출했던 김영삼, 그의 검은 돈거래를 핵심지급원을 통해 규명취재.

사법부의 정치판사들 이재화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은 어디까지 왔으며 판사·검사 실정관계의 실상은 어떠한가. 정치판사들의 인맥과 행태를 파헤친다.

야권통합 실종내막 광병찬
평민당·신야당·진보정당준비모임 등 야권 3세력의 서로다른 정체성과 전망.

일본자민당의 권력구조와 통치술 이주익
자민당의 일당정기집권체제와 금권정치의 대한 현지분석.

김근포론
보수대연합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김종철·김희택·이상수·조춘구·김세균

진보적시사종합지
말
3 1990

(주)월간 말 · 값 3,300원 · 정기구독문의 778-6523/4 · 월간 말과 함께 일할 영업·기획·홍보사원 약20명을 찾습니다. (경력자우대)

80년대 학생운동사 2
황무지에 움트는 들꽃이 되어 신준영
'서울의 봄'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81~82년 기간동인의 학생운동, 당시 주역들의 뒷이야기.

신문편집국을 편집한다 김영배
국유이데올로기와 권력지향적 속성을 갖는 중앙일기 편집국 데스크, 그들에 의해 벌어지는 왜곡·편파보도의 현장을 추적한다.

중금속에 오염된 임산부 금동희
이렇듯 임산부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신생아 태독·모유 등에도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었다. 왜 임산부는 기형아출산 공포에 떠는가?

제3차 석유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신현만
금용실명제 실종되는가
■암과 독재에 맞선 청년운동가
전노협 탄압의 전위 산업평화특별대책반
박태순의 분단기행 3 우울한 기치촌마을 선유리
김병곤
마르크스주의의 과연 위기가가
현대의 발굴·정혜성

국방군문경양민대학살
전장도 아닌 시골에 갖는 배후로부터. 여느노년에 이르기까지 총과 대검으로 실컷한 국방군 민항의 현정기록

보수대연합을 어떻게 몰 것인가 박형준
김중철의 정치칼럼.....
정치를 죽이는 냉소와 허무주의
현지보고 EC통합의 미래 김호균
90년 입투전선 전망 김진태
북한의 인텔리겐자 유영구
통일나라 연애풍속도 문병만
프로듀서 그들은 누구인가 금미사
전화여론조사 어떻게 조작되나 한국지서회

발행	인간	신	국	주
주	간	조	문	한
일	단	보	학	국
본	위	신	부	립
보	장	문	대	대
판	방	집	신	신
본	향	행	문	문
보	방	행	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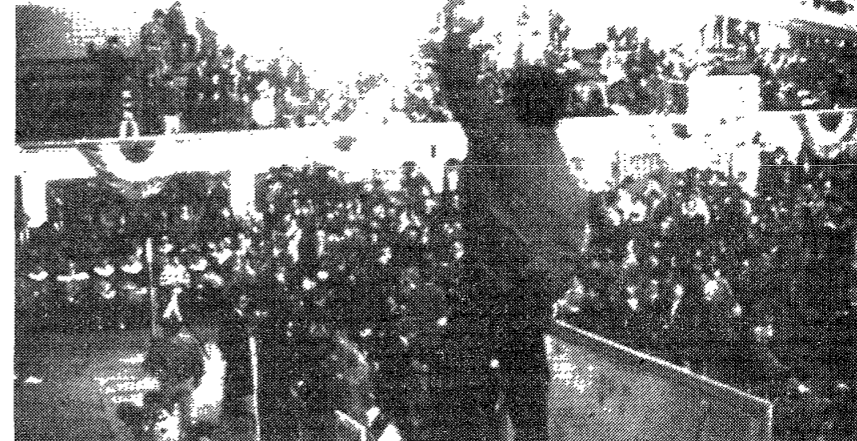
죄와 허물이 어둡기 전에
는 어리석은 사람은 흥개만
여긴다. 그 죄와 열매 이어
서 떨어질뉘 큰 죄를 받고 비로소나다.
(法句經·우암품 92절)

새 東國人 입학식 혼란속 거행

申총장서리-뫼부총장 불참속에 약식 행사 학생회 “재단총장 결사 반대” 등 현안문제 홍보

‘9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신입생 및 학부모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총학대표 학생 50여명이 申國柱 총장서리와 吳國根 부총장의 석장출입을 저지해 예정보다 20여분 가량 늦게 시작됐으며, 李載昌 대학원장이 총장입학식사를 대독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입학식이 끝나고 곧바로 비상총학생회 주최 입학환영회로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비상총학생회 회장 김경환(사학)군은 환영사를 통해 부정입학사건과 申총장서리 임명 및 부당성을 지적하고 “여러분은 이제 동양의 주인이 되었으니 민족통국의 자긍심을 살려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경상대학생회장 강용원(무역)군은 신입생 등록금에 대해 “실질인상률 22.3%는 학교의 일반적 인상으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등록금 사용 내역 및 예산 공개를 통한 합

리적인 등록금 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부당한 입학금 인상은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해 신입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학자투위위원장 강병득(미술)군은 “오늘 우리가 申총장서리와 뫼부총장을 석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입학식을 방해하지는 것이 아니라 각주체간 합의 없이 재단장의 일방적 낙점으로 선출된 인물이 신성한 입학식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은 석사할 자격이 없다.”며 1백여명의 학생이 단상을 점거 총장석사를 저지시켰다. 학생들은 단상을 점거한채 ‘총장퇴진 등록금 부당인상철폐’ 등을 요구하며 20여분간 농성을 벌여 직원 및 학부모들과 약간의 마찰이 발생했지만 학생들이 단상에서 자진 해산함으로써 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20여분만에 간단하게 식이 끝나후 申총장이 출발하려는 순간 학생들이 차량을 막으며 면담을 요구, 이날 정오 총장실에서 申총장서리, 뫼부총장, 崔圭植경주학생처장과 배대진 총학생회장 10여명의 학생간부가 참석한 면담이 이뤄졌는데 이날 학생측은 스경주부총장의 인사 및 예산 건제도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申총장은 “3자합의에 의해 임추보했던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의 사퇴거론은 무리”라고 밝히며 “이번 인사는 부총장과 협의하여 추진했다”고



◇9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서울·경주에서 지난 23·26일 각각 열렸으나 양 캠퍼스 모두 재단에서 선임한 申國柱 총장서리에 대한 지적논란으로 불미스럽게 치러지고 말았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중 학생들이 단상을 점거, 申총장서리를 비롯한 직원들과 쫓아냄을 벌이는 장면이다.

경주캠퍼스 부총장 사퇴

대행에 金시배교수 “학자투 합의 ‘자치권’ 무시” 유감

경주캠퍼스 金炯秀 부총장이 지난 2일 사퇴의사를 공식표명, 지난 5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 89년 3월 교수회에 의해 초대 직선부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는 金부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1시 소강당에서 임시교수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모든행정의 실질적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서울 중심으로 치러지다보니 소신껏 임하기가 어려웠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히며 “이러한 행정의 중추는 경주캠퍼스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 처리에서도 비능률만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金부총장은 “이번 경주캠퍼스 학자투위 보적개편에서 총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경주캠퍼스 총학위원 자신도 모르게 처리한점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경주캠퍼스의 특수성이 존중되는 자치권이 주어

도서대출량 매년 감소 추세

전공자료-논문이용저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89학년도 중도지대출량이 지난 28일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총대출량은 16만 6백21권으로 지난해 88년의 22만 7천 777, 87권의 22만 9천 9백85권 등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설별 이용도는 과제도서실을 약 23만명이 이용, 가장 많았고, 분류별로는 문학 사회과학 학술적순이었다. 한편 이번 집계결과에서는 과제도서실에 참고정간실, 일반대출실, 불교학자료실 이용의 활성화 및 전공관련 전문자료-논문등의 이용 저조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입생 특별시험

오는 10일 본관서

교무처는 조기출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1학기 특별시험을 오는 10일 오전 9시 본관(C201)에서 90학년도 신입생(90학년도 1학년 북학생도 가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강후 첫 학자투 총궐기대회

오늘 학교당국과 공청회 개최

주장, 학생측과 이해가 잇달며 면담을 끝냈다. 대화의 진전이 없자 오후 3시경

이후 교수총학생회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II부에서는 학교당국과의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申國柱총장서리, 吳國根 부총장 및 3차 2실장이 참석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88년도 학자투 8개항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제재명, 지난해 부정입학사건의 진상규명 및 학생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관련자 추가부과 미공개자료에 관한 해명등이 있게 된다. 이어 재단이사진 개편 및 재단 전입금 확보에 관한 집중토론도 열린다. 한편 III부 실천행사는 이날 토론회의 성과여부에 따라 본관 점거농성 해제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일반 휴학원 접수 오는 9일까지

90학년도 제1학기 일반 휴학원 접수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주관으로 실시된다. 90년 2월 현재 재학생으로 가사 또는 개인사정상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담양과, 해당교과와, 열람과를 경유하여 교무과에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면 된다. 휴학기간은 1년간(2학기)이며 신입생은 제외된다. **김성택 2관왕 용평스키대회서** 본교 스키부 김성택(일부2)군이 ‘제15회 용평배 전국 스키대회’에서 남대부 2관왕을 차지했다. **도서차람증 재발급** 90학년도 1학기 도서차람증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이 오는 31일까지 중앙도서관(1층 열람과)에서 실시된다. 이번 신규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90년 1학기 등록명수증과 사진대(반경합판)이며, 재발급자는 89년 차람증과 사진, 등록명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수

또다시 봄을 맞는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이지만, 이 봄은 뭔가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20세기를 10년 남겨놓은 1990년의 봄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덴마크의 실존철학자 키엘케골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표현했고, 회람사회에서는 세상의 갖가지 재앙의 근원이 된 판도라의 상자에 단 하나 남은 것이 희망이었다고 한다.

90년대의 發願

세계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믿음, 편견 등은 이 세계를 거울에 투영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마약과 난치병과 범죄의 증가, 빈곤, 무지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의식 전환과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도사람은 가르친다. **李芝洙**

수많은 길이 뻗어 있지만
청년학도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길은 내앞에 놓여 있다!

새로운 환경과 도처에 산재한 이데올로기속에서 신입생들은 방황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 역시 이땅의 민족·자주·통일의 지평을 열기 위해 진리의 눈을 떠야합니다.

동대신문사

심화통일

소련의 '평화노선'... 통일의 버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세계는 국제적 수준에서 소련의 주도하에 탈냉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탈냉전화 현상은 동북아 정세에도 어느 정도의 해방 무드를 조성할 것이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조국통일에도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 대량투표 조국통일이라는 주제하에 5번에 걸쳐 게재된다.

◆글 쓰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2.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4. 기간의 통일논의 정리
5. 신대량투표 시대의 조국통일론

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민주집중제'에 대한 노동대중을 대상으로, 경제운영으로부터의 분리를 유발시켰다. 이에따라 관료적인 사업작풍, 관료의 특권화, 비대화등 상부구조에서의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생산력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구조라 할 수 있다. 사실 소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구조는 사회주의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레닌으로 돌아가자”

1985년3월 고르바초프는 소련공

화에는 조합내에서 복수경선·비밀투표를 보장하는 조합법이 확장, 조합소유를 모색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기업성질을 유발, 생산력의 발전을 고양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비에트사회내에는 어떠한 비관론적 구애도 없다”는 글라스노스트(개방)가 언론매체에도 적용되어 왔다. 이 결과, 페레스트로이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서의 회귀가 아닌, 10월 혁명과 레닌의 관점을 계승한 심화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형적 운동이라 할 수

리22에서 다를 예정이다)은 부력과, 제국주의 국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냉전체제를 최대한 이용, 제3세계를 간섭, 간섭지배해 온 미국과 서방제국주의 논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냉전논리의 약화로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활로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소 이해관계, 중·소관계 및 소·한관계에 의해 틀어지어진다.

따라서,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초는 ‘평화공존노선’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이러한 기초하에서 최근 들어 남한과의 관계개선 및 일분과의 관계정상화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소-일 관계이다.

만약 소-일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한반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한 미군의 감축과 군사작전권의 이양(물론, 기만적인 것이지만)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남한 내에서의 반미투쟁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반도의 비핵화대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87년 7월 한태평양연료주조회 동맹에서 열린 제4회 한반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에서 U. D. 티토이로프(소련국제상호부장)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미·소·중·일 주변4국과 인도·스위스 등 중립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참가하는 ‘조선문제 원탁회의’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금지철폐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분단 고착화인가 조국통일인가’

국제정세의 탈 냉전화를 조국통일과 관련시켜 보면 크게 두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그것이 통일지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의 유지(산단고착화)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방무드를 타고 남북한 교차승인이나 유엔단독가입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주어지는 과제는 이러한 운모들을 분석하고 해방무드를 조국통일에 자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법적근거없는 인권파괴법

사상전향제 무엇이 문제인가



반인간적 유신·일재 잔재 사상자유측면서 폐지 마땅 과거사상맹렬한 공격 강요

대양이 없는 땅/흰 것도 검다고 하면 검은 색이 되었다/ 한번 반동이라 표적이 달리면/한번 정말 우연히 공산당이라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그의 인권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다/ 용기에 서 숨지로 숨버섯 따지고 살아온 인생/ 동토에서 병으로 없이 열매없이 보낸 인생... 어느 사상전향제 피해자의 ‘음지’라는 시이다.

지난 3월1일 ‘제일동조간첩단’사건으로19년의 세월을 감옥에 보낸 서승재가 석방될 세인의 관심이 되었다.

그는 출옥한 후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고 나와 기쁘다”며 “제편에서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로 옮겨져서 마자 현실없이 ‘절망’강요와 회유, 그리고 전향하지 않음에 대한 차별대우와 보복으로 나날을 보냈다”고 사상전향제의 반 인권성을 폭로했다.

사상전향 제도는 72년 12월 ‘유신헌법’1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보안전

상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또 오늘의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제도를 시인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후 육적으로 녹음하여 감호소내에서 전향발표를 하면 보안 감호처분을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전향은 본인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수기류들을 마시고 온 몸이 명 자유이 나도록 부들부들 맞는 비 인간적 녹음을 느끼면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렇다. 전향제도는 인간의 ‘양심’을 파괴한다. 전향서를 씌으로써 자신이 사회주의자였던 아니었던 간에 자기는 ‘사회주의자’였던 것이 된다. 전향제도 그것은 무한하고도 다양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무수부스 주의로 간간하게 낙인, 직배논리를 강요한다. 이는 우리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그 풍토를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었는가!

세계가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향제도가 있는 현재 과연 전향제도가 무엇이 설자라가 그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50여명의 수감자들이 계층에는 자기가 어떻게 양심수가 가두어 버린지도 모르게 보안감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있다.

배종대(고대법대)교수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쓴 바 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전향’과 ‘위협’을 목적으로 보는 법무부의 전근대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와 늘 가두어 두었던 ‘타성’의 결과다”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상은 자유라고.

< 1 >

페레스트로이카의 제기배경

1917년 10월 25일 레닌을 선두 주자로 하는 볼셰비키는 짜이르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라는 족쇄를 끊었다.

그러나,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는 10월 혁명을 이룩한 후 여러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사회혁명당, 멘셰비키, 입헌주의자등 반혁명세력들의 반혁명기도에 맞서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파시스트들의 침공과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세력에 대한 저력을 분쇄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는 극도로 황폐해 갔다. 더욱이, 당시의 농민이 러시아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에게 주어 진 과제는 발전된 사회주의의 건설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이러한 물적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NEP(신경제정책)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10월 혁명 이후의 소련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안고 레닌에 이어 스탈린이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 스탈린은 권력을 승계한 후 생산력의 고양을 위해 모든 권한의 중앙집중화 다 시말해, 중앙의 지도성과 계획성, 집중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은 1960년대까지는 일정한 생산력의 고양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의 경제지표적인 예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0년까지는 10.3%에 달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생산력의 고양)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로 크게 저하되고 80년대에 들어서는 2%로 더욱 떨어지는 등 부진한 실정인 점이 노정되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국가사회주의(스탈리니즘)가 러시아 혁명 10년을 전후로 하는 전사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력의 양적 고양에는 일정 기여를 했지만 전사로서의 사회적 조건이 사라지고, 생산력이 일고고 양립에 따라, 모순이 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는 반대급부로 각 단위기업으로 하여금 중앙에서 책정된 생산목표량에안맞게 해 노동대중의 ‘자주성’의식성’ 창조성’의 발전을 통한 생산력의 질적발전(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레닌이 사회주의의 운

‘냉전논리’ 약화, 통일에 자주적 이용을 페레스트로이카... 사회주의 심화 도정

산당서기장이 되면서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신사고”를 제창한다. 이것은 그의 예기대로 정제된 사회주의 경제·사회에 진보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의 경제·정치에 대한 개혁의 기본적 관점은 레닌의 관점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레닌은 이미 사회주의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집중제”를 이야기한 바 있고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모순은 변증법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르바초프의 말을 빌려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들어 있는 인민을 깨워 일으켜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일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다시말해, 민주주의의 조괄적 발전, 사회주의적 가치, 책임감과 창조적인 능력의 장려 질서와 원칙의 개선 모든 영역에서의 자아비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인들의 권위를 최대한 보호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대전제하에 당풍의 혁신과 더불어 중앙집권적 당의 개혁에 의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각 단위사업에 ‘독립체산제’를 보장, 생산수단을 국가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이전하는 한편, 지난 88년 5

‘새로운 사고’와 한반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은 70년대에 이룩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바탕으로 제2의 신대량투표, 평화공존노선을 주도한다. 고르바초프는 85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레이건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비축소의 진전을 강조했다.

그후 86년 2월 25일~26일 사이에 열렸던 제27차 공산당 대회에서 평화공존노선이 외교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련은 핵문제 공격을 포기하고, 중거리 핵무기협정(INF)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핵무기를 50% 감소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소련에게는 미국과의 군비경쟁이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최근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사회주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공존노선’이 근본적으로 자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그동안 소련으로 부터의 위협을 내세워 군비확장을 해 온 미국과 서방제국주의 국가들의 발상(사실 군비확장과 군사산업의 발달은 미국내 독점자본의 이해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다)—

대양이 없는 땅/흰 것도 검다고 하면 검은 색이 되었다/ 한번 반동이라 표적이 달리면/한번 정말 우연히 공산당이라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그의 인권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다/ 용기에 서 숨지로 숨버섯 따지고 살아온 인생/ 동토에서 병으로 없이 열매없이 보낸 인생... 어느 사상전향제 피해자의 ‘음지’라는 시이다.

사상전향 제도는 72년 12월 ‘유신헌법’1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보안전

상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또 오늘의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제도를 시인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후 육적으로 녹음하여 감호소내에서 전향발표를 하면 보안 감호처분을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제8회 학생논문 헌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0주년 및 4·19 30주년기념 ‘제8회 학생논문상’을 제정, 여러분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30년전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의 함성으로 여운졌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19의 참뜻을 세기며 오늘에 이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광장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응모자격... 본교생에 한함(대학원생포함) ◇주제

◇분량... 2백자원고지 50매가량

◇분야... 4월9일(월) 오후4시

◇발표... 4월18일자 본지지상(제1046호)

◇접수... 본사 총무부

◇상금... 당선작 1편(상장및 부상20만원) 2작(상장및 부상15만원)

동대신문사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크레파스 같이 사는 사람, 수채화 같이 사는 사람.



뜻밖의 인문계열 수석합격,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박지연22(양)은 스스로의 ‘작은꿈’을 위해 본의 아닌 본인의 재수를 거친 결과가 조금은 화려해져 불현듯 수석합격이다.

“장애자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보려는 시각도 하나의 장애요. 이웃으로 같이 살고 싶은 것이지, 봉사라든가 희생이라는 생각이 감히 하지 않습니다.” ‘성직순인 행복’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대학 일년의 경험은 그녀에게도 참으로 각별한 것이었다.

수없이 회자되는 자유가 이상, 그럼에도 침식 되길 거부하는 자기영역을 가진 채 공동의 꿈을 논하는 모습들...

뒤 그리듯 혼돈스러워 하며 집이 있는 대구로의 귀향길에 들린 ‘사랑의 토요 학교’가 자신에게는 ‘꿈의 토요학교’ 노릇을 한 셈이었을까.

“모두들 크레파스처럼만 살려고 해요. 크레파스의 색은 덧칠을 거부하지요. 하지만 수채화는 다른색이 겹쳐도 은은하게 또다른 색을 갖출 줄 알아요.”

인재와 참단기질의

三星

우리모두 껌데기를 벗고서

○... 생소한 대학문화와 모순으로 가득찬 이 사...
 ○... 회를 접하는 일이 신입생에게는 결코 쉬운 일...
 ○... 이 아니다. 더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은 대학...
 ○... 신입생시절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세계관의...
 ○... 정립이 결국은 그사람 자신이 얼마만큼 주인...
 ○... 되게 살아 나갈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기...
 ○... 때문이다. 아무쪼록 신입생들이 끊임없이 고...
 ○... 민하고 씩씩히 실천하는 자세와 애정어린 눈...
 ○... 으로 조국과 민족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당부...
 ○... 한다.

헤마나 3월이 되면 대학의 교정은 새로운 활기를 띤다. 대학을 이끌어 나갈 신입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신선한 그들의 모습이 교정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선배들은 그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해 따뜻한 말로써 설명해 주기도 하고 신입생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대학의 문에 서서 신입생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까닭이다.

동우리를 바치는 결단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밝은 사고와 고등학교 때 배운 가치들에 대한 회고도 생길 것이다. 껌데기를 벗고 현실이 가진 모습들을 아픈 고민속에 해결해 나간다면 대학은 신입생들을 진정 주인으로 설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대학이란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흔히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된다. 과연 그렇까? 상아탑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고상하며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이고 깨끗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학은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대학은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에 항상 정의의 편에서 서서 민족을 옹호하고 독재정권과 계급주의세력 맞서서 가장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곳이다. '진리는 결코 사회와 동떨어진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객관적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걸로로는 '진리'와 '학문'이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민족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착취하는 배반정권과 계급주의에 맞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대학내의 온갖 부정부패에 맞서 싸워왔던 것이다.

즉, 우리민족의 국권회복수호를 민족의 일기 장군이라고 하고,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온갖 토벌을 축말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배치된 것을 알았음에도 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며 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기에 온갖 거짓이론과 학문을 배격하고 민족과 민족의 이해에 봉사하는 사명을 갖고 존재해 왔던 것이다.

한 허무와 개인주의적 즐거움으로 매꾸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힘을 주고 모순을 해결하는데 신명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문화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학에는 올바른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많은 공동체적 모임이 있다. 동아리가 있고 학과마다 학회가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끊임없이 문화적 공동체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있다.

우선 동아리는 다른 사람과의 뜻 깊은 만남을 보장해주며 동료들과의 의미있는 대화와 토론학습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이란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학생운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부모님들로부터, TV로부터, 고교 선생님들까지 데모하자, 말하자, 중고와 함께 학생운동은 다가온다. 학생운동이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실천이며, 1945년 이래 계속 되어온 민족에 의한 식민지정치를 물리치고 민족주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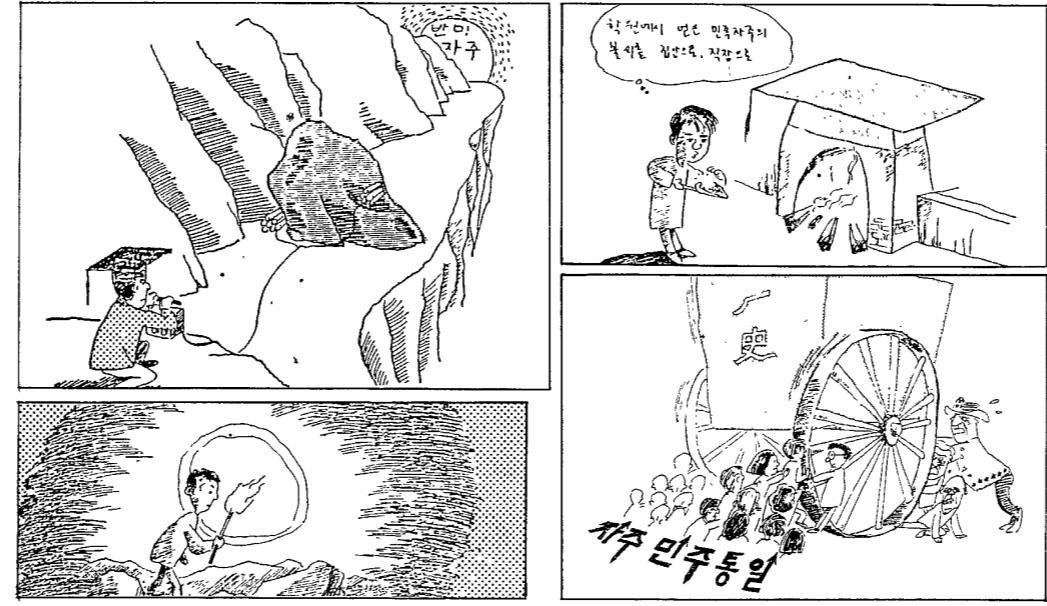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숭비사대주의와 온갖 불의에 저항해 나가는 운동이 바로 학생운동인 것이다. 우리가 학생운동을 이해할 때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 보이고 신배에 보이기조차 하지만 그들도 대학문을 들어서며 '선배조심, 몸조심'이라는 말과 정권측의 '좌경용공' 때도를 슬하에 들고 몸조심을 했던 사람들, 곧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조국의 현실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따라서 스스로가 올바른 대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과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은 민족과 사회에 뜨거운 애정을 가진 사람이 모여 참된 진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를 무기로 민족과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순을 해결하는 애국적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곳이다.

대학문화란 무엇인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문화



허구적 '상아탑' ... 실천으로 극복해야 끊임없는 고민 - 행동하는 자세 필요

를 '생생파티나' '미팅' '디스코' 등을 떠올리며, 대학문화는 말쑥 젊음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입시교육에 쫓겨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자마자 대학생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나 절제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문화를 대학문화라 생각하고 탐닉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미팅'과 '디스코'라는 서구지향적이며 개인주의적, 소비적인 향락문화가 대학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문화는 대학생의 한달 학수비에도 못미치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고칠 수 있게 하는 힘과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조국의 현실을 이끄려는 우렁찬 함성과 같은 건강함은 애당초 없기 때문이다.

대학문화는 대학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이다. 대학문화는 대학인을 현실에 대

한 환각적인 자세 또는 조급한 자세 모두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은 완벽히 인식한 후에야 실천할 것이다'라는 것과 성급히 결정해 버리고 모든 것을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둘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큼 분노하고 분노한만큼 실천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학적 인식의 기반을 넓히고 매단계마다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하는것만이 더불어 수준급의 인식과 실천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발전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역사와 대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우리의 학원은 일차만큼 충실했는가. 최소한의 충실성이나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권에 빌붙어 그들의 눈치를 보고 미국식의 잘못된 대학문화를 조장시키지 않았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한배주의적 인식에 대해 슬한 날을 고민하고 자각해 드디어는 애국의 단신으로 무장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SHARP

“젊은이의 꿈과 미래에 언제나 샤프가 있습니다.”

사프만의 친절하고 신속한 A/S제도

전국의 서비스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친절한 아파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3가지 필을 드립니다.

PA-3200H

PA-3100N (검정색) PA-800H (아이보리색)

미래를 향한 공학도의 파트너!

EL-5150 EL-5100S EL-9000

사프전자산업(주)

전통의 서점 종로서적은 대학인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신학기 대학 교재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신학기 대학 교재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도서·컴퓨터·사무기기·레코드·문구·팬시의 종합 매장

종로서적

'산업평화'가 노동자 감시인가

수용소 방불케 하는 '현대왕국' 고발

울산은 '1984'(?)
"경비대입니다. 우선 자리를 옮기도록 하죠"
"경비대라요"
"회사측이 고용한 공수부대, 운동경기자 출신의 노조감시원들입니다"
이곳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인간 사육장인가 아니면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삶의 터전인가
이것은 결코 허구나 과장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요로운 내일'



을 위한 산업평화를 그토록 외치는 우리나라 글자의 개발인 현대그룹 산하 현대중공업의 현대모습인 것이다.
기자는 제대 이영현노조위원장의 구속사태로 지난해와 같은 진풍이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의 갖가지 취재를 하기도 전에 회사측의 경비대에게 쫓겨야 했다.
"회사측은 경비대를 고용해 노조 관계자들이 움직이거나 외부사람을 만날 때마다 보이기만 하면 공공연히 감시원을 불러 저렇게 감시합니다."
또 수배된 노조관계자들이 차트 링크에 타고 옮겨와 차 트렁크까지 조사하는가 하면 노조관계자와 만난 외부사람의 미행까지 서슴치 않고 합니다"라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조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결혼'까지도 빅브라더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1984'년을 떠올린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 노동자 출신인 '박진관'주최자의 차안에서, 노동자들의 속소로 자리를 옮겨가며 취재를 시작해야만 했다.
준법투쟁이 위법(?)

87년 7-8-9월의 뜨거웠던 노동자 대투쟁의 메카로서, 지난해에는 식칼테러등을 당하면서도 민주노조를 지켜낸 현대중공업노조는 조합원만 1만8천명이 넘는 대규모사업장노조의 전성기이다.
그런 현중노조의 5대위원장으로 취임식도 안한 이영현씨를 구속한 노조(전 노조위원장 이원진씨등)들의 재판에서 상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유래없이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항의

하는 과정이 집단조퇴와 집단원자 휴가등 합법적이었다는 점등은 회사측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이 2월9일 이위원장을 구속한 표면적 이유는 정외조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노동자가 석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가 1심보다도 높은 형량이 구형된것에 항의, 준법투쟁을 전개한 것 뿐입니다"라는 말에서도



△정부와 독점자본은 민자당 창당과 함께 적극적인 탄압으로 방향을 바꿨다. 89년 120여일간의 정기파업 당시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자료사진=노동해방 문화)

월차휴가등 준법투쟁 위법으로 몰아 전노협 중심으로 강력 대응 공수부대 출신 경비대 감시의 눈초리

알수 있듯이 취임도 하지않은 신임 위원장을 고소한 회사와 그걸 빌미로 구속한 경찰사이에도 모종의 음모가 오고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장의 구속말고도 우기하수부대위원장과 김학두중장비 위원장이 수배되어 있고 노조집행부에 대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면 그것이 추측만은 아니라는 걸 알수있다.

만약이나, 이위원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8월에는 울산시청노동부에서 노조제정업무조사가 들어오기도 했고, 다음날인 10일에는 전경3개 중대가 동원돼 광견력이 개입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일은 현중노조가 전노협에 자주적으로 참여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정업무조사와 잇따른 집행부의 구속·수배조치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은 정부의 전노협화해를 위한 탄압이 대기업노조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

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로 단결을
한편, 이위원장이 구속된 직후 노조는 대외원간담회를 통해 회사측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회사측에 구속된 이위원장을 집행부에 대한 고소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조가 외부 불순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며 구속

지로 결의하기도 했다.
전노협탄압의 전초전
"작센분자에 포섭되어 우리직장을 파괴하는 자를 색출하여 추방합시다"라는 회사측의 플래카드에서 나타나듯 회사측과 정부는 노동자들 자주적인 요구로 건설된 전노협과 노조를 일방적으로 '적색'이라고 내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우려되는 3당합당을 통한 친미반민주 아합을 통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무차별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이들이 일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갓자라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에 편승해 잘라 뜯게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대응은 너무나 의연하며 정당하다.
"저들이 의도하는 바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안일한 정부경제정책의 실패, 기술·설비부족에 인색함으로 침체된 경제와 학생들의 조국통일운동등으로 기반이 없지는 마지막 발악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노동자들은 내적으로는 생산의 힘을 높이고 밖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막는 음모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것입니다"라며 이데올로기공세와 노동자

들간의 분열을 꾀하려는 음모에 팔러 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음모의 임금인상투쟁과 반민자당 투쟁으로 가시화된 전노협과 정부·독점자본과의 싸움.
그에 대미한 선공으로써의 단위 노조과파괴음모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조급씩 감아먹어들이오는 가진자들의 공세에 맞서 이영현 위원장은 유중추진을 통해 담담히 그러나 힘있게 대항하고 있다.
"우린 열구리에 식칼이 쫓겨도 머리가 바살나면서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호르는 눈물을 머금고, 비폭력으로 동지들로 가슴안고 투쟁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노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노조의 역량을 축적해 사랑하는 내진공 내진공을 노동자의 힘으로 건설해 냈습니다" (유 권준기자)

노조자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고소취하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회사측에 맞서 노조는 "모두가 회사측의 기만적인 모습에 맞서서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다는 결의에 차있습다."
회사측이 계속 고소취하를 않고 정부와 함께 탄압을 한다면 작업이 아닌 집업거부, 특근거부, 휴일근무 거부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을 중심으로 계열사노조와 함께 노조탄압규탄 리본달기, 벽보붙이기, 울산경찰서항의농성등 시민운동과 가두투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 기아산업, 서울 지하철공사등 6개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협의를 갖고 "전국대기업노조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현대중공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공동대응해 나가

교사 통한 '합당선전' : 교육실종

민자당홍보 고발한 전교조를 찾아

=90년도 제1차 공직자 시책교육 실시계획
가. 교육대상:전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나. 교육내용
· 90년대의 미래상과 새로운 정치 질서의 당위성
- 신당정당의 역사적 의의 및 배경
-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의 함의
이상은 지난 1월22일 인천시교위가 3당합당의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을 교직원들에게 홍보·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각 교육기관에 띄운 공문의 일부분이다.
최근 8당합당이라는 기만적인 정국구도하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정



교육자가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치적 중립성을 건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의 본질인 데도 교사들을 정부체계의 하급관료용으로 취급하는 낡은 풍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교조 인천지부와 울산, 울주지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위헌'이라 규정, 지역 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정부가 교사들이 위치한 교육계도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대해 '교육자가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논리로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시교위)은 명령을 시달할것 뿐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시절 5공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고교교

정치선전 교사동원... 중립 온데간데 합법성 쟁취만이 교육중립 이뤄내

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비판적 민주주의를 고양시켜야 할 교육위원이 이러한 홍보작업에 앞장서는 현실이 심각한 위기감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시책교육은 각지구별로 다양하게 실시됐는데 지난 2월10일은 울산 반곡국민학교에서 교무실로 교사를 모아 놓고 '90년의 미래상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비디오와 '정국전환과 직업공무원의 역할'이라는 특제비디오풀어주었다.
또한, 2월12일 인양국민학교에서는 학교 후 교사들에게 각각의 교실에서 '토지공개념'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였다.
현법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

해적교사는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통일교 신하 '한국교사원리연구회'주최로 실시했던 교사연수에 참여를 지시한 것이 또한 밝혀져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연수내용도 '학원가 동향과 좌경과 실패'에 관해 대학생 및 민선세력을 북한을 통일전선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극우이념을 퍼뜨리고 통일교와 극우이념을 연관시켜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교는 그동안 그들의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방학중 해외연수를 마땅히 교정단체에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정단체의 힘을 빌어 결과적

계, 선생님들의 판로주의,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점등의 고질적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이윤배반적 작태와 비정상적인 일들은 결국 전교조를 계속 지속해야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전교조가 합법성을 쟁취하여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인섭 선생님은 차근차근 말했다.
참교육사에서 얻어지는 수입과 조합에서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만으로 가정생활을 꾸려야 하는 한 해적교사의 한숨에 어디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전교조는 풀러가야 한다" (槩)

신뢰받는 첨단기술 HYUNDAI

나는 대학생생활의 뉴 리더

한발 빠르게 선택하고 남보다 앞선 기쁨을 누린다
지금 대학가에 현대 워드피아 선풍이 불고있다. 앞서는 대학인이 선택하는 현대 워드피아 - 고성능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동급가중급 국내 최저가 보급형이면서도 자료정리에서 리포트작성, 연구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활용범위가 넓고 컴팩트형이라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간편합니다.
일의 능률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신세대 감각의 최첨단 워드프로세서 - 현대 워드피아

현대워드피아 비교될수 없는 5가지 장점

1.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
2. 고속의 열전사 프린팅
3. 컴퓨터와 호환가능
4. 최대 9개국어 사용가능
5. 일러자판이 표시되어 이용하기 편리

서울 중랑구 전자동66 현대전자빌딩 전화:733-5555 교환:5115-7
교동문, A/S 문의: 741-1131/4

서울 동문구 뉴힐대우7129-8333 동문구 인곡사문기계상사733-5564 중구 로얄사문기756-6767 동구 현대OA서비스267-9746 동산구 (주)삼진전자701-7579 동산구 말린테크703-9346 동산구 현대OA종합판매741-0724 강남구 현대전자543-3888 송파구 서울현대테크413-1124
신호전자745-6301 디지털277-9427 성문전자(주)757-2428 (주)삼진전자777-4741 발원반도체상사(주)702-3236 영통로구 제일사무기678-1137 (주)토키오432-5177 동북구 현대OA581-1901

87년 대선까지, 그 역사적인 대통령 직선투표에 임박해 있을 당시, 전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안방에서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킬링필드.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을 주인공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으로 단 순화시켜 버리고, 월맹군의 잔혹한 살상을 강조한 이 영화가 투표장에 나선 국민들을 얼마나 ‘보수화’ 시켰는지는 정확한 수치로 알수는 없지만 “빨갱이가 죽어 시체터미널 보고 차를 털었다”라는 한 시민의 반응에 미루어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UIP 직배반대등사회변혁운동 참여

영화 지배계급의 도구일 수 없어

영화앞세운 미국문화침투극복해야

은 큰 산이었다. 특히 미군정청은 온갖 자급력과 권력을 내세워 미국영화 배급회사를 통해 국내의 영화 시장을 독점하려 시도했다. 거대한 자금을 통해 제작된 미국영화는 폭력과 오락성, 선정적 화면 등으로 한반도 민중들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영화속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케하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그 배제성이라 이보다 따로 할 수 없다.

당시 미국영화 ‘잃어버린 주말’을 상징하는 극장에 젊은 남녀들이 가득 들어찬 것만 보아도 영화가 전파와 문화적 침투, 정치적 허탈감 조성 등 정치적공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렇듯 해방직후 어렵게 명맥만 유지해온 민족영화운동은 1948년 단정수립을 맞아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

이후 7-80년대에 들어서 자생적인 개인주의적 투쟁경향이 본고 유원목교수의 ‘오발탄’, 이강호감독의 ‘바보선인’ 등에 나타났을뿐 영화계의 흐름으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두 갈래의 영화운동종류가 형성된다.

무엇 영화배제는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민중의 이해와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예술은, 오직 순수성만을 강조하는 예술은 결국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 이용되어, 오히려 순수성을 애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허물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선전동력이 커다란 영화배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그들의 영화를 앞세운 문화·정치적 침투를 자행하는 지금에 있어 우리영화계의 나갈길은 자명해진다.

(유기호기자)

주인된 천만노동자의 당당함을 염원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모든 변혁운동의 선봉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우선 착취계급과 비착취계급의 계급적 갈등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착취계급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내고 위대한 민중시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일 것이다.

“박노해 현상”은 이러한 급박한 정세와 객관적 현실이 문예영역에도 반영되어 문학작품 현실주의가 노동해방사상의 문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 지난 84년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노동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최초로 시로써 형상화한 ‘노동의 새벽’을 발표하면서 이 땅의 노동문학과 노동운동, 나아가 변혁운동의 질적·양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박노해를 조명할 것이다.

박노해현상

박노해는 ‘화학 속마치오’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시인에서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선진적 노동운동가로 변모하여 현재 ‘반계·반독점·반파쇼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혁명가’로서 그

신은 박노해란 이름을 가진 개인이지만, 분명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적 지배 권력의 심장부를 날카롭게 공격하면서 변혁운동세력의 힘을 결집시키는 세력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박노해의 문화와 삶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박노해현상’은 제1장에서는 박노해의 시적변모와 정

있다. 더욱이 국내영화의 제작 편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이유로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법정 1백46일에서 20일을 단축해 국내영화계의 자생성마저도 잘라버리고 있다.

이러한 시도속에서 어느 신진 영화인은 “예술을 비속화시켜 대중성을 갖는 것”보다는 “민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예술로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무엇 영화배제는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민중의 이해와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예술은, 오직 순수성만을 강조하는 예술은 결국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 이용되어, 오히려 순수성을 애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허물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선전동력이 커다란 영화배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그들의 영화를 앞세운 문화·정치적 침투를 자행하는 지금에 있어 우리영화계의 나갈길은 자명해진다.

(유기호기자)

‘한국가곡의 밤’

한국예술가극연구회 ‘신촌 한국가곡의 밤’을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마련한다.

강기재, 이한수씨들의 성악가들이 ‘수선화’ ‘봄이오면’ ‘보리밭’ 등의 우리가곡을 부른다.

‘전혜수 독주회’

전혜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외에, 옛남캘리포니아대를 졸업한 그녀는 이번 독주회에서 하야든의 소나타, 쇼팽의 환상곡을 연주한다.

달하나 봄이 봄이기 위해서



高昌宅
(인문대교수·사회철학)

1990년대가 열렸다. 비야호로 21세기를 예비하는 세기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세기말은 보다 소망스러운 2천년대의 새로운 세계를 인류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현재의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겪어가고 있는 거대한 혁명적 변동과 혹독한 자기혁신의 진통이 결국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소멸 즉 ‘인민의 인간화’로 귀결된다면, 세기말이라는 기차는 일단 아들의 말을 빠져나와 빛날 가득한 봄의 속으로 달음질 해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년 우리들이 맞이한 90년대는 봄의 소스치림 희망을 자아내고 있는가? 북한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추동한 사회주의적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빛쟁을 견어내며 과감히 합류할 어떠한 경우도 내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또한 80년대 내내 국민대중들의 가열찬 투쟁과 처절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어 90년대의 우리 남한사회를 관통해오던 월 민주화와 인간해방을 지향한 큰 물결기가 역류에 휩쓸릴 위기에 봉착한게 아닌가 해서 막막해진다. 사실, 국민적 지지와 민주세력의 공갈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5공청산’ ‘국가보안법을 위한 악법의 즉각적 개폐’ ‘내실있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등의 일정한 정치적 요청들은 완전히 목살된 채로, 고루한 반공 및 반단의 논리, 자본의 논리, 지배자의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형식적·일방적으로 80년대를 마감했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의

봄은 이미 봄이기 위한 몸짓을 멈추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결국 우리의 90년대의 첫머리는 마치 민중들의 굳건한 노력으로 쟁취되어진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독점해 버리는 것처럼 ‘남의’ 사회주의의 위기를 ‘자신의’ 자본주의의 승리로 구가하면서 형성된 이른바 ‘보수대연합’으로 귀착되었다. 언뜻 보면 ‘보수대연합’으로 귀착된 민중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무력화공작으로 겨울을 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하여 싱그러움 봄내음을 맡지 못하며 희망으로 다가와야 할 세기말의 첫 봄은 그 문턱에 ‘전·월세 폭동’이라는 엄청난 절망의 자포자기인 포아리를 들고 버리고 있는 형상이다. ‘전·월세 폭동’이란 가진자들에게겐 허리띠에 한 열쇠꾸러미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 ‘남의’ 사회주의의 위기를 겨우 아슬아슬한 계산도 지켜야 할 돈도 없는 그야말로 열쇠 하나 못짓는 열쇠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소박한 생각뿐인 대다수의 국민대중들이 되풀이 하여 희생되어도 마땅하고 옳다는 것이다.

계절로서의 봄은 완연하게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도 봄이 아니다. 그러면 봄은 어떻게 오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봄은 살아 다시 오기. 또한 겨울을 밀어내어 봄을 이끄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정작 우리들뿐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봄이 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일이다.

지난 87년의 대외투쟁이후, 노동자계급은 88년 노동법 개정투쟁 등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획득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전역에서 보다 강고한 역사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모든 변혁운동의 선봉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우선 착취계급과 비착취계급의 계급적 갈등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착취계급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내고 위대한 민중시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일 것이다.

“박노해 현상”은 이러한 급박한 정세와 객관적 현실이 문예영역에도 반영되어 문학작품 현실주의가 노동해방사상의 문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 지난 84년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노동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최초로 시로써 형상화한 ‘노동의 새벽’을 발표하면서 이 땅의 노동문학과 노동운동, 나아가 변혁운동의 질적·양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박노해를 조명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혁명가’로서 박노해는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닌 변혁운동세력의 힘을 결집시키는 세력으로서 존재한다

‘박노해현상’

박노해는 ‘화학 속마치오’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시인에서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선진적 노동운동가로 변모하여 현재 ‘반계·반독점·반파쇼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혁명가’로서 그

동자간의 연대의식도 현실적 힘이 되기에는 관념적이다”라는 신념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박노해가 문학에 획기적인 선을 그렸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70년대의 ‘속류민주주의’에 사로잡혀 공허한 구호의 감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미학사학들에 비해 박노해는 ‘충격’이라 할만하다”는 현존한 지식에 우리모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다.

‘박노해의 모든 시적변화와 정치적 성향, 칼날같은 시각은 노동자들의 대오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고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모든 변혁운동의 선봉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우선 착취계급과 비착취계급의 계급적 갈등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착취계급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내고 위대한 민중시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일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모든 변혁운동의 선봉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우선 착취계급과 비착취계급의 계급적 갈등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착취계급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내고 위대한 민중시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일 것이다.

‘박노해현상’

박노해는 ‘화학 속마치오’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시인에서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선진적 노동운동가로 변모하여 현재 ‘반계·반독점·반파쇼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혁명가’로서 그

동약광장이 새롭게 바뀝니다!

게시판 역할을 하던 동약광장이 보다 대중적으로 변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실속있는 동약광장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관심을 바랍니다.

내생일 축하가 신문이 나왔는지? 생일 선물이야.

가방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지?

우리 향우회 모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전할 방법이 없을까?

동약광장의 광고문의는 본사 <2194> 문화부

동국대 4거리 남편 200M

동국대 전산교육의 산실

영남컴퓨터학원

상담전화: 43-5925-42-9444

새롭고 희망찬 미래는 바로 현재의 우리들을 위한 시대입니다. 컴퓨터 교육 - 영남컴퓨터학원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영남컴퓨터학원은 동국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최상의 교육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개강일자: 3월 12일 (개강전에 수강신청 바람)

개강신청: MS-DOS, GW-BASIC, COBOL, FORTRAN, DBASE III+, 워드프로세서, LOTUS 1-2-3,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EDPS 개론, 공무원 시험반

강의시간: 새벽 6시 반~8시, 오전 10시 반~12시, 오후 1시~2시 반, 2시~3시 반, 저녁 6시~7시 반, 7시 반~9시

※3월, 9월을 제외한 달은 매일 1일이 개강일입니다.

교육방송국(D.U.B.S) 수습국원 모집

지원자격: 90학번 신입생

모집부문: 제작부·보도부·아나운서부·기술부

원서배부 및 접수: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시험일시: 3월 13일 오후 5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송국 (교내전화 2197)로

교육방송국(D.K.B.S) 수습국원 모집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D.K.B.S) 수습국원 모집은 지원자격·모집부문은 서울과 동일하며 원서는 오는 14일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오는 15일, 18일 2차례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The Dongguk Post 수습기자 모집

지원자격: 90학번 신입생

시험일시: 서울-3월 26일 오후 5시 30분

경주-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시험장소: 서울-명진관 A103

경주-원효관 A301

시험과목: 영어(작문, 독해, 문법) 국어(작문)

원서교부처: 서울-본사 사무실(학생회관 지하)

경주-경주Campus 동대신문사 취재부

서울·경주 보직인사 개편

申 총장서리 취임으로 한달만에 또 "産苦" 보직교수 일괄사표따라 일부제외 재임명

申總長서리취임이후인 지난달 19일 李善冠 總長의 보직인사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을 졸업식과 입학식 행사로 연기해 오다 이번엔 임명한 것으로 대부분이 재임명되었다. 이번엔 개편된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대학원장=李載昌(불교학·유인) △행정대학원장=金鎮煥(정치외교학) △경영대학원장=趙熙榮(경영학·유인) △교육대학원장=鄭世錫(수학교육·유인) △정보산업대학원장=黃龍浩(회계학) △동국의료원장=申國柱(정치외교학·총장결임) △정각원장 서리=李煥山(선학) △불교대학장=吳亨根(불교학·유인)

△문과대학장=金英煥(국어국문학·유인) △이과대학장=崔德熙(수학·유인) △법과대학장=李淳容(법학·유인) △사학과대학장=徐載根(경찰행정학·유인) △경상대학장=金英煥(회계학·유인) △농과대학장=金英煥(농학·유인) △공과대학장=李文輔(건축공학·유인) △사범대학장=吳洪植(지리교육·유인) △예술대학장=徐贊禧(연극영화·유인) △이부대학장=徐開吉(불교학) △기획조정실장=서울캠퍼스 부총장=吳國根(영어영문학·유인) △교무처장=閔泰賢(화학·유인) △학생처장=趙炳贊(농업경제학) △총무처장=俞光震(정치외교학·유인) △중앙도서관장=金東俊(국어교육·유인) △박물관장=洪潤植(역사교육·유인) △과학관장=成瑞吉(화학) △과학문화연구원장=蔡澤深(선학) △총장서리실장=白宇錫(교육대학원교과과장)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장=金煥秀(국문학) △정각원장서리=崔昌植(불교학·유인) △인문과학대학장=橫根植(일어일본학) △자연과학대학장 서리=崔相範(조경학) △법정대학장=朴進錫(행정학·유인) △한국의과대학장=文善典(한의학·유인) △외과대학장=외대부속중추병원장=崔수성(의학) △교무처장=崔永泰(생물학) △학생처장=崔永泰(생물학) △학생처장=崔永泰(생물학) △학생처장=崔永泰(생물학) △학생처장=崔永泰(생물학)

▷사찰조경연구소장=孫昌求(조경학·유인) △한국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장=安昌範(한의학·유인) △의료원기화관리실장 서리=金鍾玉(전미서리실장)

노조 단체 협약안 의결 임금인상률 12% 제시

'90년도 노조조합협정기준'이 89년도 결산보고와 90년도 예산안 및 단체협약안 심의의 결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5시 총체적인 2백70명중 파관수가 훨씬 많은 1백77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L301)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전노조원의 주요요인사인 임금인상율을 기본급 정률 12%, 분봉 정액 3만 원 일괄인상안 등 총 9장 74조 및 부속 6조의 단체협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단체협약안중 급원에 새로 마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전원 1명 중원 △직급승진 보장 △기능직 직급제 전환 △기능직 3등급 인사제도 전환 △호봉체계 개선 △수주인정을 위한 대역제 도입을 제시했다.

보전 남학생 1천6백1명, 여학생 6백43명이 각각 앞선되었으며, 총선정자중 4백60명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신청,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학내직종에 1백9명, 학외에 2천1백35명이 앞선되었으며, 보수는 학내직종 행정보조가 최고 월10만원까지, 학외직종은 사무보조가 최고 월35만원까지로 집계됐다.

경주 도서관 14만권 - 미등록도서 4만권 보유장서 발표

경주캠퍼스 도서관(관장=襄相賢·학문학)은 89학년도 도서증가통계와 제2회 도서대출량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기존 도서와 구입도서를 포함, 총 1만3천3백3권이 늘어났으며 현재 도서관의 보유장서는 중앙서, 서양서, 고서, 학위논문 등 도서가 13만9천4백72권, 미등록 도서가 4만2천73권 4만여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증가된 장서를 분류별로 보면 중앙서 8천5백81권, 서양서 2천4백86권, 고서 80권 등이다.

또한 89학년도 총대출량은 88학년도 10만6천2백66권보다 5천5백74권이 감소한 10만6천32권으로 집계됐는데, 분류별로 살펴보면 문학류가 가장 많은 2만9천9백81권이고 사회과학 2만2천8백99권, 철학이 8천6백82권, 역사서 7천7백76권 순이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인문대가

3만9천7백66권, 상경대 2만2천5백75권, 자연대 1만5천1백23권 순이며 교수와 교직원도 2천3백84권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인의집'사업개시 현재 40여업체 등록

효율적인 후생복지실현을 위한 '동국인의 집'제안들이 지난 2년 일제히 사업을 개시했다.

음식점, 호텔등의 업종에 지난 2월까지 40여명이 회원등록을 마치고 본교 후생복지과에서 현재 등록 접수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동국인의 집' 심필마르키는 교표를 중심으로 본교 상점인명명진출업종은 주계로 도형화해 청색과 붉은색을 조화시켜 상단에 깃자를 도형화해 이루어졌다.

총학 선거 일정 확정 오는 28·29일 투표 실시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오는 28·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학생회칙 제69조·79조항에 의거 지난 88년 3월선거로의 전환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안성준·국민위원회)에 의해 세부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임무는 자치적으로 7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72학점이상 취득자로 3백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학생회칙 同규정에 의거, 총대의원회는 총20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선위원회를 지난달 25일부터 열고 있는데 오는 30일 당선자확정공고 이후 자동해산한다.

이번 총선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등록=9일~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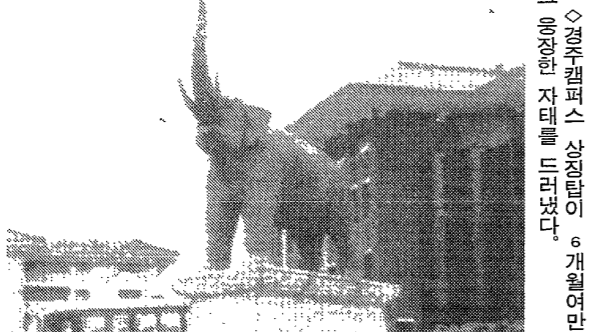
오후5시 50분 중선사무실 △1차 유세=20일 오후1시 도서관 앞 △2차 유세=22일 오후1시 동국관 앞 △총계투표=23일 오후1시 도서관 앞 △3차 유세=27일 오후1시 만해광장 △투표=28, 29일 △당선확정공고=30일

한편 제6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장=최윤화·인철)도 지난달 25일 구성, 선거제에 돌입했다.

총선과 같이 실시되는 이번 총선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선거 일정은 총선과 동일하다.

본사辭令

依願免職
▷서울캠퍼스
▲金興基(문과대 국문1) (1월5일자)
▷경주캠퍼스
▲柳守賢(인문대 국문1) (2월28일자)



신입생 예비대학 '인기' 강연회등 다채롭게 열려

경주캠퍼스 90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이 총14개학과 6백여명의 신입생및 재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경주 보문단지내도무락월드 일원에서 열렸다.

첫날인 지난21일 오후3시에 는 뜻지센터 광장에서 입학식을 필두로 "전교조와 참교육"(강사=김윤근·내남교예회) 강연, 학과별 토론회가 있었

다. 이어 들뜬날인 지난22일에는 과별토론, 올림피아드 민중가요 및 율동경음악 공연, 만화공모전이 열리며 초청공연, 대동놀이한바탕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날인 지난23일에는 본교 이만근(철학)교수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강연, 졸업식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단체협약안중 급원에 새로 마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전원 1명 중원 △직급승진 보장 △기능직 직급제 전환 △기능직 3등급 인사제도 전환 △호봉체계 개선 △수주인정을 위한 대역제 도입을 제시했다.

아르바이트 집계 총2천여명 앞선

서울캠퍼스 89학년도 2학기 아르바이트 현황이 지난달 20일 최종 집계됐다.

신청인원 총3천23명중 2천2백44명이 앞선 이번 집계를

90학년도 양캠퍼스 입시 수석 합격생과 함께 "학풍 빛날 면학 분위기 시설 확충해야"

또 "학교에 와서 보니 전반적인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부족하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으며, "중립대학으로 본교재단이 무척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학교에 대한 투자를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는 윤근은 모수에서 학문의 열정을 보일 수 있도록 본교가 아낌없는 편이라 최근 감이 느껴지고 학생들도 소박해 보여 참 좋다는 윤근은 요즘 학생운동에 관해 "학교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치사회에 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다 다니는 대학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끝으로 시험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관해 묻자 "용하다는

기자의 축하의 말과 함께 소감을 묻자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처음 일간지에 발표되었을 때 내가 아닌 同名異人인 줄 알았어요.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놀라움과 기쁨이 무척 큼니다"라고 대답하는 박상현은 "인간생명에 대한 외경, 사람을 상대하는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활기차고 성실하게 매사에 임하면서 대학생활동안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요"라고 의욕에 지대한 동

아요"라며 신입생답지 않은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또한 예비대학을 통해 지금까지 협소하고 단편적인 사고에서 조금은 탈피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선배님들의 자애로운 설명과 충고와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생운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조금 머뭇거리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감을 느낍니다"고 말하면서 요즘 대학생들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입학후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대금과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며 "과외 관련된 비고 해부학과 입시에 쫓겨 못

한 운동을 하고 싶어요"라며 남관과 자유의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졸업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의사로서의 개업보다는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박군에게 다시 한번 입학에 축하한다는 말을 인터뷰를 마쳤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감에 찬 박군의 모습속에서 후회되지 않을 대학생활을 보내리라 확신할 수 있었다. (樂)

우선 살고보자

○...지난21일의 보직인사 개편을 둘러싸고 학내가 숙덕공론으로 어수선.

후 前총장의 후광을 입고 있던 대다수의 보직인사들이 거의 유입된 상태에다 파격적으로 평균월급수 몇백원이 인사내용중에 포함돼 있어 그 의구심은 더해간 가는데.

한낱의 사격연습

○...연세 방화사건으로 경찰력의 힘점이 드러난 가운데 대구에서는 경찰관이 시찰한 가운데 사격 연습(?)을 해 말했. 사연 인 즉, 3명야 합의 부당

로 보내자"며 흥분. "채면이 밥먹여주나?"

○...은방울에서는 저체중 오신 분이 채면 치레 생략하고 파감하게 "죽음연습"을 선언하고 나서 ... 그것 인 즉, 은방울

인터뷰

서울소식
윤재민
김재민

“입학식때요? 옆에 앉은 여학생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했어요”라며 입학식 당시의 느낌을 재치있게 설명하는 90학년도 대입후기 수석입학생 윤재민(공과대·전자계산학과)은.

박상현

경주소식

“開業醫” 보다는 후배 지도할 터
다방면 지식 습득 기회로 활용

기과 나뉘는 대학생활을 설계한다.

부모님의 권유와 위치가 집과 가까이 본교를 선택했다는 박군은 총 485.7점 만점에 439.7의 성적으로 경주캠퍼스 전체수석으로 입학.

“학교 분위기가 아담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라고 언급한 후 “다 대학과 관련한 교류도 지역적인 특단, 독선을 탈피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고 학교의 복지시설도 많이 미미한 것 같

申總長서리 입학식서 비상구로 탈출기도... 우리에게 멋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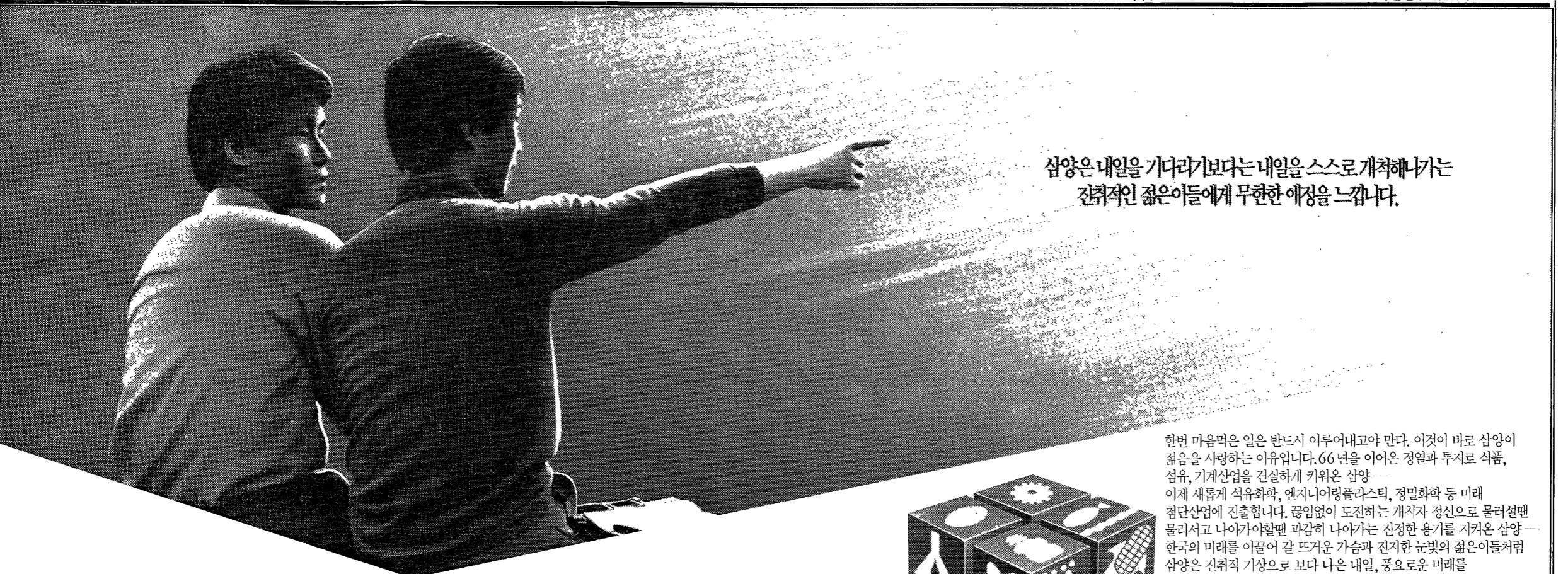
인사를 위한 인사인지, 방패막이 인사단행인지 아쉬운 한 가운데 이를 지켜본 모직원 왈 “소인위계 신(申)스타일을 창출하여 개혁을 감행해야 할 현 동양의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총장서리 임지안정을 위한 식의 보신 개편밖에 아니다”며 쓴웃음.

新총장이 희망사항

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행동하게 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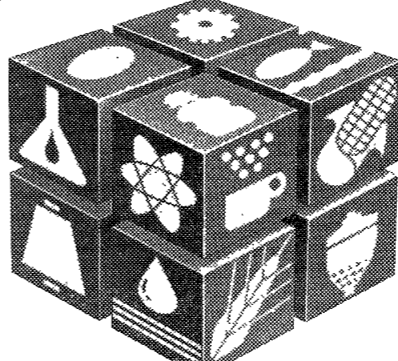
윤을 참치 못한 기운은 “여보세요, 학교 관계자님들 소름과 학우들이 교수도 없고 고쳐는게 신상에 이로운 걸”이라며 경고.

이에 모학우 왈 “우리에게 필요한 총장은 멋있지 못



삼양은 내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일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인생을 이야기하고
24시간 잠에 취할 수 있는 젊은이”



삼양

- 주식회사 삼양사
- 삼양식품(주)삼양사
- 삼양화학(주)삼양사
- 삼양물산(주)삼양사
- 삼양건설(주)삼양사
- 삼양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삼양사
- 삼양물산(주)삼양사
- 삼양건설(주)삼양사
- 삼양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삼양사
- 삼양물산(주)삼양사
- 삼양건설(주)삼양사
- 삼양주식회사

서울구치소로부터의 사색

을 발휘하듯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며 생활의 모든 측면을 일관되게 정돈함이 더욱더 큰 빛을 발할 대학원의 자세라 말하던 선배님의 모습속에서 그리고 대화문화를 더 이상 방관하는 자들의 집단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배님들의 뜨거운 용기와 절단력있는 태도속에서 저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저의 모습은 더욱더 자신을 재검열해 왔으며 아픈상처로 자리 지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와 잘못된 교육들은 저를 더욱 분노케 했고 화염병을 들며 짱들을 던져대는 지배정권의 말대로 '일부과격 학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삼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안녕하...
통일열원 46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법학과 89학번이창규입니다.
“오려려 요즘 생활이 될 부담스럽고 편합니다. 마치 휴가 나온 기분이라네요.”
구말 22일 생탄절을 며칠 앞두고 평화스럽기만 하던 동학의 학생회관은 이른바 '남산전야적전'이라는

안료되고 공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우려했던 초래한 모습이 아닌 의외로 우렁차고 자신에 찬 씩씩한 모습을 대할 수 있었다.
“요즘 생활이 어떠냐는 기자의 첫질문에 '휴가보낸다'는 농담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지난번과 달리 요즘 구치소는 안으로 신문도 들어오고 많이 민주화되었다. 같은 방에 일반사람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신문읽고 공부 이슈에 대해

고쳐나가야한다는 문제제기에 많은 호응을 얻어 무척 기쁘다"라며 미소지었다.
이러한 지지와 호응으로 지난 23일부터 3일간 일반 구류자와 합동으로 '친미파쇼야합 규탄 단식농성'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일반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는 참신, 요가를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알려준다.
“싸움 하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도 책을 안 읽으면 머리가 굳는 것 같거든요"라며 불만을 털어 놓으며 "매일 동료, 선배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 제와 중의 투쟁하던 모습에 반해 스무척이 돼 버린 것 같은 내 자신에게 다시 뜨거운 투쟁의욕을 불어 주기 때문이죠"라며 입을 열었다.

투쟁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지금 막으로 9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평화부드러워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수경 대표가 평양출신에서 말했듯이 5년만에 남북통일이되는 바로 자주통일의 날 기일입니다"라고 전제한 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운동권내의 분열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운동의 대중화, 즉 학우대중이라는 불속의 불고기가 되어 일반 학우들을 투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7발'이라는 짧은 면회시간에 더 많은대화가 이루어 지길 바랬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우리 학우들은 구치소에서도 의 기소될까는 커녕 날로 신심의 투쟁의욕을 북돋아 가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결연한 자제로 날카로운 자기비판과 애정 어린 상호비판으로 90년 사업에 임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겐 폭압적 상황에서도 의연히 투쟁하는 학우들이 있다. 최소한 이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나아가기 위한 사회를 하나하나 바로 잡기 위해 일어설 때이다.
"나가면 담배 한 모금 헛차게 팔고 싶습니디. 우리 모두의 고통을 마시고 싶기에..."

밝음이
최경민 (10)

고등학생... 깨달은 7월

행복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대학생... 머리에 떠오른 7월

중장은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와 잘못된 교육들은 저를 더욱 분노케 했고 화염병을 들며 짱들을 던져대는 지배정권의 말대로 일부과격 학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선배님들의 그러한 태도를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배님들의 대화속에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순된 억압적 사회구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적인 생존에 허덕이며, 그들의 권리를 수탈당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억압과 착취로 부터 해방을 위해 선봉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저급의 모순된 사회에 이미 자각한 선배님들을 투쟁에 세계 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과묵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이 더욱 그 효용

일반사범과 함께 학생운동 토론하기도 친미파쇼야합 규탄 단식농성 벌여 동료·선배에 편지쓰며 투쟁 다짐

중부서 압호명하에 숙대반이 되어 버렸다.
“경악”이라 표현한 그날 사건이후 약 두달이 지나고도 연행된 31명 중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군, 동대리연합회장 김태진(국문3), 이세용(무형3)군등 6명이나 되는 학우를 캠퍼스에서 아직도 볼 수가 없다. 집합·폭력행위처벌법·업무방해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중요한 학생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을 인식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러한 서로간의 인식공유가 비록 개인의 처지와 상황은 다를 지라도 모순된 하나의 사회를 살아간다면 같이 고민하고

“여섯명의 학우가 모두 자기 멀리 떨어진 방에 수감되어 있어 서로의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가끔 만나는데 법학과 장규가 몸이 안 좋다는데...”하며 말씀을 흐트러진 자신만은 아주건강하다며 웃어 보였다.
이군은 동약에서 지금 이 순간

메이리
▲모든 정치·사회·권력·사회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을 부정주의라 한다. 'anarchy'는 회합어로 정부나 통치의 부재를 뜻한다. 국가와 법 또는 감옥, 사제(司祭), 재산등이 없는 사회를 지칭하는 부정주의로 보았으나, 요사이의 혼허 무질서와 혼란한 상황을 비유할때 쓰인다. 그러나, 부정주의의 본분 하나의 사회 철학이며 정치이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이다. ▲W.O.드윈,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그리고 톨스토이도 이 사상계통의 거장이다. 이 사상은 "인간은 본래 신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할때

현장취재
이들 6명의 학우들이 친미파쇼야합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을 하는중 구치소 안에서도 투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하여 지난해 총학생회 사회부장 직무대행을 했고 투쟁본부장이었던 이세용군을 만나기 위해 귀환 서울구치소행 버스에 올랐다.
구치소 건물은 회색색으로 단정했지만 면회하러오는 많은 사람의 손잡속에서 개인이나 수십 갖듯 일과였다.
약 1시간을 기다리고 면회실에서 만난 이군은 지난해 피바다공연과 평양출진, 학자부에 관한 조사가

신문, 진정 올바른 선전선동매체인가

흔히 매체라하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충족시키고 전달하는 물질적, 정신적 총체를 일컫는다.
매체는 구두선동·토론·강연·기자회견등의 대인매체, 신문·유인물·책자등의 인쇄매체, 대자보·포스터등의 전시매체, 영화·비디오등의 시청각매체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매체기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하면 바로 대중을 올바르게 선전선동 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민중적 속성을 지니며 아울러 지배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할 시기에 발간되기 시작한 동아·조선일보를 생각할때, 한국의 신문대기업의 형성의 기본축적과정의 비정상성과 파멸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75년 이 두일간지는 언론의 자유실현을 위해 뛰쳐나왔던 기자 2백여명을 강제해고 시켰으며

창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건결정등 아직도 5공연의 잔재와 모순구조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신문매체의 소유와 운영은 철저한 가족단위 주벌체제를 이루고 있음을 볼수있다.
우리나라 4대일간지(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의 주식소유는 4대신문의 총주주의 56%를 방우영등 6인과 2개기업(세유산업·인촌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는 바로 신문의 사적소유의 모순의 실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가심만을 자극하는 상품광고가 주류를 이룬다. 신문매체에서 광고의 문제 또한 기사내용이나 신문기업의 경제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0년대는 언론계로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 할수있다.
5공정산과 더불어 언론계 내부에 쌓여있는 비민주적요소, 구조적 모순을 하루바삐 청산해야 한다. 6공 화국이 들어선 이후 한국일보사를 시발로 결정되기 시작한 언론사노조는 89년 11월 52개로 불어났으며 언론노조연맹도 결성, 활발한

3월단상
로만 보인다. “졸업식장에서의 계간세계” 약식으로 치러진 입학식. 이것이 동국의 친선인원치처럼 확대해석되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동국의 자긍심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와 자괴감을 들게 한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치부물 드러내야 할때도 있으나 이런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까발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대안

없던 민주총장선거가 빛이날 당연한 귀결일수 밖에 없다. 목표조차 없는 항해는 어디서 끝날 것인가? ▲계간이 단상으로 남아있음에 이미 교수의 권위도 인격도 사실상 버린것이다. 권위와 인격이 없었던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명예가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비난의 화살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쏘여져야 할 것이지만, 많은 동국인의 바람은 결국 학교의 민주적 발전이든 그 한에가 바로 “언론정화”를 내세우는 것인 것 같다. 무정부주의적 발전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국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렇게 완전한 것을 알리는 경향이 있다. (愚)

한국사회의 지배적 언론양식은 자본주의 언론이며 한국역사는 군사정권의 역사라고 할만하다. 군사정권은 언론의 역사이다. 따라서 한국언론의 역사적 진가를 보며 군사정권은 정보통제를 위해 언론산업에서 독재가 형성되도록 갖가지 법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언론사들은 정권과 유착하여 독점적이익을 획득하여 왔다.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우민중항쟁이 일어났음에 이를 무력으로 제거하기위해 언론학살을 자행, 그 한에가 바로 “언론정화”를 내세우는 것인 것 같다. 무정부주의적 발전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국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렇게 완전한 것을 알리는 경향이 있다. (愚)

이중에서도 언론, 주로 신문언론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비평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지배적 언론양식은 자본주의 언론이며 한국역사는 군사정권의 역사라고 할만하다. 군사정권은 언론의 역사이다. 따라서 한국언론의 역사적 진가를 보며 군사정권은 정보통제를 위해 언론산업에서 독재가 형성되도록 갖가지 법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언론사들은 정권과 유착하여 독점적이익을 획득하여 왔다.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우민중항쟁이 일어났음에 이를 무력으로 제거하기위해 언론학살을 자행, 그 한에가 바로 “언론정화”를 내세우는 것인 것 같다. 무정부주의적 발전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 “국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렇게 완전한 것을 알리는 경향이 있다. (愚)

언론노조는 민주·민중언론 향한몸부림

한 이러한 신문매체의 경영권을 틀어쥐고 있는 지배자들은 개인소득순위에서도 역시 자본권을 기록한다.
신문기업의 수입에서 가장 커다란 원천은 바로 광고수익이다. 대자본과 정권의 결합으로 성장한 신문매체는 수익을 올릴수 있는 영역으로 광고수익을 늘여왔고 신문의 이익의 신문수입에서 지대·광고수입의 비율이 36%:64로 광고수입이 압도적인 일간지도 있다.
이러한 광고의 파생성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남과 여를 상품화시켜내는 남녀 앞선광고도 버젓이 게재되고 소비자들의 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가 결성된 이래 언론사노조들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편집국장 직선제·편집국장 추천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등의 제도적 편익권 독립까지 마련한 개개의 개성을 잃었으며 끊임없는 공정보도감시활동을 통해 외국·편파보도를 억제하는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언론사노조의 몸부림을 보며 진정한 민주·민중언론매체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최희운 記者)

새로나온 책들

베스트셀러
이우용 외 역을 판해부수·장르·주제등을 고려하여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들의 작품집을 가진 5인의 젊은 평론가들이 집필한 이 책은 제 3장에서 “젊은 날의 초상”에서 “변경”까지의 이념을 비판하고, 제2장에서는 김우중회장의 자본주의학에 대한 전면비판, 제3장에서는 마광수의 야만문학, 제4장에서는 유인전을 중심으로 우리시대 예제의 현주소를, 제5장에서는 역사의 태백산맥 저편에 서있는 “태백산맥”을 비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시대평론사·3천3백원)

신생哲學
윤노빈 지음
우리 시대, 우리 철학의 과제? 무엇인가? 저자 윤노빈은 압울했던 독재 권력이 시행하던 시절 나름의 시대적 과제를 부담, 중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하나의 반쪽”을 선택하여 버렸지만, 그가 남긴 철학적 자기성찰의 고백적인 이 책은 인류의 굳은 혀를 생생하게 주름에 중독된 민족의 광학한 입술에 생기를 불어주기 위해 오랜동안 기도와 주문속에 갈구해져 있던 언어와 개념들에 찬란한 불빛을 비추어 이 불빛을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학민사·3천6백원)

젊은 혁명가의 초상
최태환·박태환 지음
이 책은 前인민군 역사기록부장이자 정치보위부 책임장교 출신인 최태환의 구술을 소설가 박태환이 정리·집필한 한국전쟁에 관한 체험적 기록물로 고위간부의 기록이란 점에서 다른 작품들에서 얻기 힘든 자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인민군에게 37도선 이남의 지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은 한국전쟁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사를 던져주고 있는데 빨치산활동을 한국전쟁의 일과정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인식지평의 확대를 가져다 준다. (공명체·3천5백원)

해물리학자 이휘소
공석하 편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1977년 의문의 죽음에 당한 이휘소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갈등과 마찰을 파헤친 문제의 책으로 이휘소박사는 정경고 2학년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 서울공대 화공과에 수석으로 합격하는등 천재성을 발휘했는데 그의 가장 큰 공로는 1972년에 발표한 게이지장의 재규격화이론으로 게이지 입자와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인데 이박사는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뿌리·2천8백원)

황해
이원규 지음
새로운 인식으로 분단 문제를 그린 장편소설로 80년대에 등장한 가장 신비한 반란작가 이원규가 인천과 그 앞 바다를 부대로 하여 비극의 민족분단사를 그리고 있다. “황해”는 지난날의 분단소설들이 배웠던 상투성이 합성을 거둔하게 벗어나 역사의 객관적 시점을 확보한 작품으로 해방공간의 혼돈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수많은 자를 속에서 인간존재의 본질을 해명하고 아울러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에 충실을 기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한국예술사·4천원)

박노해현상
편집부 역을
84년말 당시의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의식구조속에서 구체적 이고도 생생한 노동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여 “노동자 계급적 당파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최초의 시집” “노동의 새벽”을 발표하였던 박노해의 삶과 정치적 지향은 무엇이고 이를 반영하는 그의 노동해방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의 문학에 대한 문학적 대의의 평가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이 책은 노동문학의 성과와 노동운동의 발전추진을 검증하고 있다.
(동예·3천8백원)

갈라진 45년 가사본 반쪽
안동일 지음
불교라는 환취계기를 위한 책으로 안동일 기자는 6·25이후 세대로 발전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북한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안동일 기자의 북한취재기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책은 젊은기자가 쓴 북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취재기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북한인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들베개·4천원)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이치수 옮김
불교라는 거대한 식물을 있어서 꽃송불교가 아닌 이치수 원시불교나 부파불교는 씨앗이자 뿌리라고 같다. 그러므로 원시불교와 소승불교의 관계는 직선적, 이원적인 논리에 바탕한 사상의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교회와의 관계처럼 배타적·대립적이 아닌 유기적·통합적 관계이다. 이 책은 문헌이나 교리뿐 아니라 석존제세의 역사적·사상적 배경과, 석존과 그제제들의 삶의 모습, 교단의 형성과정 등을 문화사적 방법으로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원정사·3천원)

원으로부터의 탈출
김동환 지음
우리가 살고 있는 원이라는 우주는 불변의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원으로부터의 탈출은 이 세상상의 변하는 진리로부터의 탈출함을 뜻하는데 우리에게 종교·철학·과학·문학 그리고 유제라는 원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는 왜 원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 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원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원을 저주해야만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동·3천8백원)

하얀전쟁
이정호 지음
전쟁사설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소설은 미국의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람이지만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한 출판사 부장에게 대한 내용으로 월남적인 지식은 역사적 의미의 추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소설은 안정효씨가 월남으로 가서 보고 느꼈던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서술로서 전쟁이라는 집단적인 사건이 지나는 의미보다는 전쟁행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고려문·3천8백원)